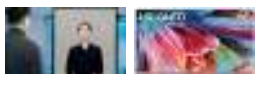
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월 5일 화요일
etoday.co.kr

제2549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사상 첫 온라인 'CES2021' 관전 포인트 13

은성수 "투자자 신뢰 회복에 만전" 16

코스피(4일)	코스닥
▲ 2944.45(+70.98P)	▲ 977.62(+9.20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082.10(-4.2원)	▼ 0.954%(-0.022%P)

〈생후 16개월 입양아〉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SNS 확산
양부모 폭행·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여야 '아동학대 방지법' 뒷북 논란
"필요 인력·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분노의 표적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와 초동대응 미흡으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서울 양천경찰서다. 정치권에선 경찰청장 퇴진론과 학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정인이법' 입법론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여론과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건 분노뿐이다.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소속 연예인 관리, 자극적 언론 보도와 일부 팬들의 과도한 관심 등은 문제로 거론되지 않았다.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선 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숨지기 전 활짝 웃는 정인이. SBS방송 화면캡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과 '패키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국민의힘 등 야권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경찰의 초동대응 미흡을 비판하며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문제는 특정 목적으로 특정 대상에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대로 전수조사했고, 종합대책을 만들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보다 중요한 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전담공무원 확충이나 예산 증액에는 대책을 요구했던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가 악하고,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문제의 전부란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우선은 경찰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사회 전반으론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 내달 말부터 접종

국내 심사 착수…40일 내 허가 목표
신규 확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심사에 들어간다. 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4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브라질·미국 등 10여 개국은 임상 3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AZD1222)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정부의 애초 계획인 2월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허가 심사기간을 180일 이상에서 4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무해한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이용, 코로나19 유전자를 주입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다.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한다.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용법·용량으로, 보관 조건은 2~8℃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사망과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고령층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020명 늘어난 6만426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7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역 확산 우려도 커졌다. 지역 신규 확진자 985명의 13.9%에 해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지역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감염 취약집단의 집단발병과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요인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박미선 기자 only@

새해 첫날 코스피 2900 돌파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인 4일 29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98포인트(2.47%)오른 2944.45로, 코스닥은 9.2포인트(0.95%) 오른 977.62로 장을 마쳤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관련기사 16면 조현호 기자 chohyunho@

〈투·스리룸〉

빌라 월세도 1년 만에 30% 뛰었다

전세난 여파…원룸은 11% 떨어져

지난해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투·스리룸 월세가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지역 투·스리룸 월세(보증금 1000만 원 기준)는 86만 원이다. 전년 같은 달(67만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8.4%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 18곳에서 지난 1년간 투·스리룸 월세가 상승했다. 중랑구(20.7%)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18.5%)와 종로구(16.7%), 관악구(16.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구(-9.4%)와 서대문구(-9.1%), 강북구(-4.9%) 등지에선 2018년보다 월세가 떨어졌다.

다방은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투·스리룸 매물의 월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서울지역 투·스리룸 평균 월세는 전년 말과 같은 수준이었다. 7월 말 전·월세시장 규제를 강화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투·스리룸 시장과 달리 지난해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시세는 평균 11.2% 하락(53만 원→47만 원)했다.

대학생 수요가 많은 대학가 원룸은 다방이 조사한 10곳 중 중앙대 인근(9.8%)을 제외한 9곳이 하락세를 보였다. 연세대 인근(-17.3%)과 건국대 인근(-10.4%)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박종화 기자 pbell@

4000만원 문턱…거침없는 '飛트코인'

탄생 12주년에 사상 최고치 경신
전문가 "1분기에 5만 달러로 오를 것"

가상화폐 대표 주자 비트코인이 새해 들어서도 초강세를 보이며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전일 대비 9.8% 폭등한 3만4792.48달러(약 3785만 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만3000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한 후 지금까지 50% 가까이 뛰었다.

특히 이날은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2주년 되는 날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비트코인 설립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는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생성할 때 2009년 1월 3일자 타임스에 실린 '금융위기' 관련 헤드 라인을 코드에 포함했다. 시장에서는 12년 전 바로 이날을 비트코인이 생성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단위 : 달러, 현지시간 기준)

영국 런던 소재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Nexo)의 앤토니 트렌체프 공동 설립자는 "비트코인은 1분기 안에 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연말연시 연휴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후 이번 주 사무실로 복귀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상품투자전략가는 "비트코인이 기술 괴짜나 투기꾼들의 전유물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고 있다"며 "중앙은행들의 돈 찍어내기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구겐하임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미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달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결국 4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에 비해 거래량이 훨씬 적고 변동성이 매우 커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021 신년기획

뉴 노멀 위드 코로나 ..... 4~5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 6~7

재계 '고객·품질·미래'에 집중…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의선 "품질·안전 완벽함 추구"
구광모 "고객, LG 팬으로 만들자"
최태원 "새로운 기업가 정신 필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고객중심, 품질혁신, 미래성장과 혁신 등으로 요약되는 올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읽고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한 해를 돌아보고 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Back to the Basics'를 내세운 것으로도 풀이된다.

먼저 재계 총수들은 올해 고객과 품질을 키워드로 꺼냈다.

최근 발생한 현대차 울산1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애도를 위해 영상 메시지 대신 서면 신년사로 대신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4일 글로벌 그룹 임직원에게 "현대차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존중의 첫 걸음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회사의 경영철학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품질과 안전은 특정 부문만의 과제가 아니다"며 "그룹 전 부문의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일치 단결해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완벽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이후 2019년 첫 신년사에서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천명한 이후 고객 가치 경영 메시지를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구 회장은 2021년 디지털 영상 신년사에서 "고객을 세밀히 이해하고, 감동을 완성해 LG의 팬으로 만드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정직한 브랜드,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의 브랜드라는 굳은 믿음을 고객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성장과 혁신을 당부하는 신년사도 이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언급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의 행복 추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도전과 패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힘과 마음을 모아 보자"고 당부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새해에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올해는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매어 본연의 소리를 되찾는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경영 목표로 현금 창출과 미래 사업 성과 도출을 제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조 회장은 "입고 있는 옷과 서 있는 자리만이 달랐을 뿐 고객을 섬기는 자세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양사 임직원 모두 다르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총수들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현장에서 마스크 위로 보이던 여러분의 눈빛에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읽었다"며 유례없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발휘했는지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일하는 방식부터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신년사에서 △고객을 향한 불요불굴(不撓不屈) △구성원 간의 원활한 협업과 소통 △다양성을 수용하는 조직문화 등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재용 부회장 "시스템반도체 신화 만들자"… 새해 첫 현장경영

평택 2공장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 참석, 전략 점검
"삼성전자·협력사·학계·연구기관 협력해 생태계 조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 현장경영으로 올해 행보를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4일 새해 첫 근무일을 맞아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한 후, 반도체부문 사장단과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삼성으로 도약하자"며 "함께하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해마다 새해 신년사 발표 대신 경영 현장을 찾아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년 1월 2일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개발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평택 2공장은 D램,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라인이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 데 이어, 올해에는 파운드리 생산을 위한 설비반입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이 참석했다. 이용한 원익IPS 회장, 박경수 피에스케이 부회장, 이우경 ASML코리아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 등 협력회사 대표 5명도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평택 2라인 구축·운영 현황 △반도체 투자·채용 현황 △협력회사와의 공동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초미세 반도체회로 구현에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전용라인을 점검한 후 평택 3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평택사업장 파운드리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생산설비 반입식에 참석한 협력회사 대표들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및 상호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후, 직접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챙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산업의 특성상 삼성 혼자의 힘으로는 '1위'에 도달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 테스트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1위로 도약하는 과정이 곧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 부회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협력회사와의 장비·소재 공동개발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국내 팹리스 지원 및 기술교육 △디자인하우스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내 자식 상관 마"… 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논란이 된 '친권 우선주의'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만성적 학대, 방임 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은 친권 상실·정지요건으로 '친권의 남용'을, 일부 제한요건으로 '친권행사를 함에 있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소재불명, 의식불명 등)'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친권 남용은 친권의 과잉 행사로, 본래의 친권 행사에서 벗어난 학대·방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민법으로는 학대·방임을 이유로 부모의 친권을 제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민법은 제915조(징계권)를 통해 학대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대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면 그나마 행정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다수 피해아동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진다. 2019년 9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난해 1월 발생한 경기 여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복귀 후 재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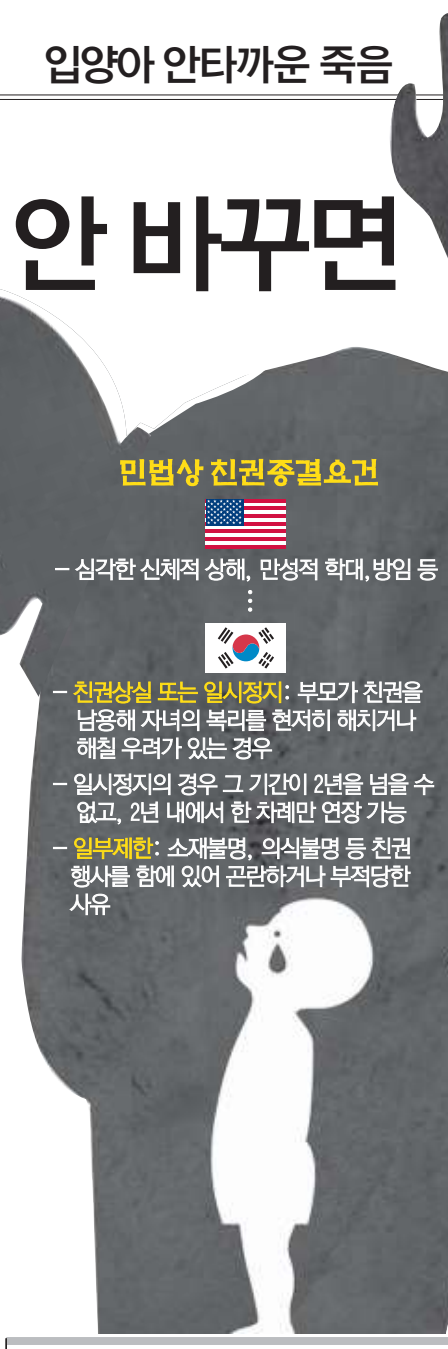
민법에선 '친권=성역'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 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

"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 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간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는 부모의 반성, 부모의 요청, 친모의 가정복귀 신청 등에 의해 아동을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려보낸 일이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법감정도 문제다. 양육·훈육에 행정·사법이 개입하는 데 대해 여전히 거부감이 심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으로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운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한다고 했을 때 '부모를 배제하면 고아원에 보낼 것이냐. 그것보단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사고가 팽배하고, 그런 생각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사법·집행기관의 인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학대 신고했지만… 세 번이나 뭉갠 경찰

'정인이 사망' 공분 확산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정인이'의 죽음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정인이는 입양된 이후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지고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뼈가 깨져 있었다.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부검감정서에는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도 기록됐다.

정인이의 학대 신고는 3차례나 이뤄졌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정인이 양부모 지인 등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배가 부딪혔다"며 학대를 부인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양부모의 말을 믿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청원도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6만 명이 동의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 "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보호 시스템의 한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족한 집행력은 여전해 '정인이 사건'처럼 정인이를 구할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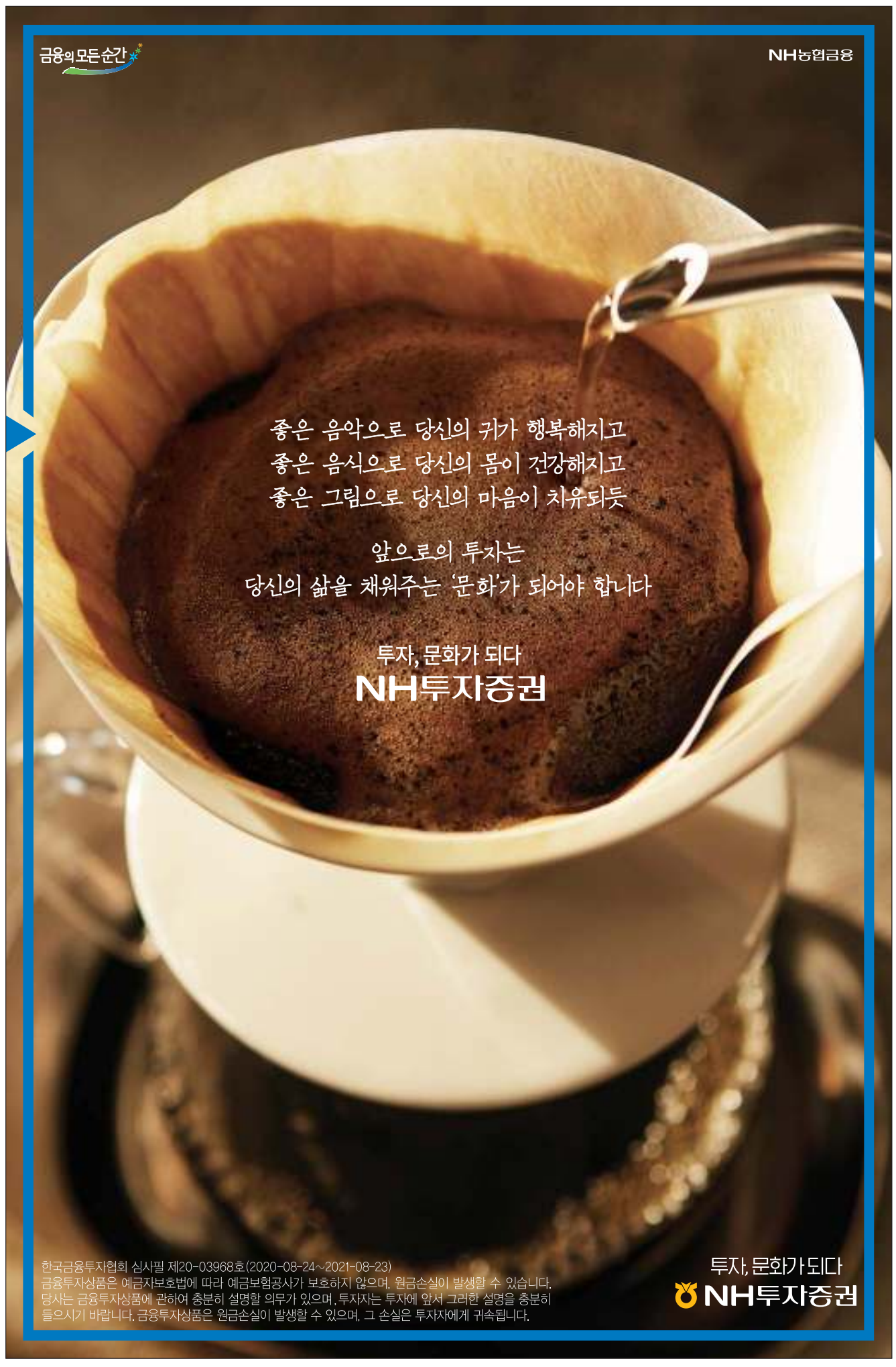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도입됐다.

법·제도 개선에도 아동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이나 공무원이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막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고를 접수해 가정을 방문해도 부모들이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조사를 나간 공무원이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강제조사의 한계는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확인·조치 후에도 문제가 남는다. 복지부 조사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간 가정으로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은 총 3139명이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1심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형률은 26.3%에서 15%로 급락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판단이 관대해졌다기보단 부모와 관계 악화에 기인한 신고 등 '학대'로 보기 어려운 신고가 늘어난 탓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백신+이코노믹스〉

막오른 '백시노믹스' 시대 한국 경제 'V반등' 기회로

강요된 뉴 패러다임… 기회냐 위기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지난해 팬데믹으로 억제됐던 수요 폭발 등으로 인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경제 방면에서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도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022년 완전회복" 낙관전망 속
탈세계·디지털화 '대변혁' 기로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기술
바이오헬스 주력산업 성장 기반
국내 제조기반 강화 온쇼어링 등
정부,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대봉쇄(Great Lockdown)'로 정의했다.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대봉쇄로 몰아넣었다"며 "봉쇄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새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여기에는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보급이 전제로 깔려 있다. 다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새해 글로벌 경제에 회복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과거 일자리를 모두 되찾고 기업과 투자가 받은 역사적인 타격을 치유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백신이 최근 서구권에서 재개된 봉쇄 조치 필요성을 줄이도록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투여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바이러스에 직접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은 약한 수요를 더 견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백신은 세계 경제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연간 3조4000억 달러(약 3692조 원)의 속도로 국내총생산(GDP)이 증발하고 있다"며 "만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효과적인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손실액은 1조20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빈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연간 손실액은 153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이 백신 보급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년 경제회복이 본격화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상과 경제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국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 산하 맥킨지 글로벌인스티튜트의 제임스 매니카 소장은 "원격 근무와 학습, 원격 진료와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가 더 활성화한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많은 트렌드가 가속화했다"며 "공급망의 지역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폭발적인 증가 등 경제구조의 변화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자들은 급변하는 미래에 더 취약해질 전망이다. 매니카 소장은 "소득 양극화와 '긱이코노미' 근로자의 증가 등으로 노동자들이 직업 전환에 적응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그만큼 이들이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은 △탈세계화 추세의 가속화 △여행과 이민의 감소 △자동화와 디지털화 가속화 △녹색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 등 4가지 트렌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각 지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면하게 될 경제 과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를 최대한 막기 위해 펼쳤던 대규모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쌓인 막대한 부채가 올해 경기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발표한 '수평선에 놓인 희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이나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 특히 미국과 유럽은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데 따른 재정적 혼란이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향후 재정 파탄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는 한국 경제에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고통을 줬지만 K방역이라는 선물도 가져다줬다. 비대면 의료기술과 대처기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바이오헬스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씨젠은 코로나19를 기반으로 매출이 2019년 1220억 원에서 2020년 1조 원이 넘었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 세계 경제 질서와 패러다임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얘기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는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산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온쇼어링 정책, 디지털 산업구조로 변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 구축, 국내 기업 간 협력 확대, 규제 개혁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화가 흔들리면서 지역화가 유리해지는 상황에서 수출 모델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공급망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각화해야 한다. 수출과 세계 무역 의존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성장모델에서 점차 벗어나 좀 더 균형 잡힌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대대적인 구조혁신과 군살 빼기에도 나서야 한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자동차, 전자, 유통 등 기존 산업들은 물론이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비대면,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경쟁력 없고 전망 없는 분야는 과감히 구조 조정해 기업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비대면·디지털·친환경… '포스트 코로나' 이끌 대세

비대면 배송 증가 이커머스 각광
반도체 중심 디지털 산업 성장세
수소 등 친환경 산업 패권 경쟁
백신·홈트레이닝 헬스케어 주목

글로벌 산업별 주가 트렌드(연초 대비 종가 기준)

세계		미국		중국		유럽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	
정보기술	41.3%	자유소비재	47.2%	정보기술	60.9%	정보기술	11.6%	건강관리	47.3%
자유소비재	34.7%	정보기술	43.4%	건강관리	52.9%	유틸리티	6.2%	정보기술	47.1%
커뮤니케이션	22.1%	커뮤니케이션	24%	자유소비재	49.9%	소재	6.1%	자유소비재	36.2%

※ 자유소비재: 아마존 등 소비자들이 기호과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포함된 섹터
※ 커뮤니케이션: 페이스북,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이 속한 섹터 ※ 정보기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의 섹터 ※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섹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산업 지형이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산업은 전 인류가 누릴 미래로, 당장 보편화될 가능성은 적은 '파괴적 혁신'쯤으로 취급됐다. 코로나19가 기존 경제 질서를 바꿔놓은 '브이노믹스(V-nomics)' 시대가 펼쳐지면서 비대면과 디지털에 기반한 산업들은 '존속적 혁신'을 이뤄내며 빠르게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H·E·D·G·E(헷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를 헷지하고 있다. 백신과 의료 서비스 중심의 △Helthcare(헬스케어) 산업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정생활 중심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E-commerce(전자상거래) 산업도 영토를 빠르게 확장했다.

또, 코로나19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Digital(디지털) 경제가 출현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Green(친환경) 산업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재택근무·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비대면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자리를 잡으며 △E-communication(온라인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각광을 받으며 급증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클라우드·반도체 분야의 성장세 역시 가파르다.

지역별로 산업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미주 지역에선 전자상거래·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돋보였다. 아마존과 월마트 등 이커머스 기업들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37% 성장했다. 온라인 주문량 증가에 따른 배송 지연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을 이용한 로봇 배송 같은 무인배송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IT 산업의 성장세도 높다. 데이터 수요 급증에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 엔비디아는 작년 매출액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빅테크 기업 역시 평균 10%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백신과 홈트레이닝 등 헬스케어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산업도 미주 지역과 유사한 성장 곡선을 그렸다. 비대면 배송의 증가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으로 한정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가정 내 교육·오락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 산업군의 주가 상승률은 지난해 연초 대비 50%대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에선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 전기·수소 경제 조성을 위한 투자가 좀 더 많이 이뤄졌다.

유럽 지역에선 친환경·디지털 산업의 성장세가 높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수소경제 위주의 그린딜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고, AI와 데이터를 두 축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유럽증시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속한 유틸리티 분야는 연초 대비 주가가 6.2% 상승했고, 디지털 기업이 포함된 정보기술 섹터는 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유럽 증시의 총 주가 상승률이 -7.2%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브이노믹스 (V-nomics)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Virus)'의 V와 '경제(Economics)'를 결합시킨 단어로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부상한 '2021년 신축년 10대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꼽은 키워드이다.

자동살균 車·가전 내놓고 'K바이오' 치료제 개발 박차

'점프업' 준비하는 기업들

현대차, 방역 기능 강화 신모델
LG,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출시
항공업계, 의약품 배송 영역 확장

네이버·카카오, 에듀테크 도전
반도체업계 생산설비 확충 분주
제약사, 코로나 백신 개발 한창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꿨다. 삶의 방식은 비대면·언택트(Untact)로 바뀌었다. '브이노믹스(V-nomics·Virus+Economics)'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제 지형이 변했다.

◇전통 산업의 '방역화'…코로나 시대 웰니스(wellness) 산업이 뜬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자동차 설계도 바꿨다.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는 LG전자와 협업해 방역 기능을 강화한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을 선보였다.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면 실내를 살균, 관리하는 'UV LED(자외선 발광다이오드) 조명'과 바닥을 청소하는 '플로어봇(Floor Bot)'이 동작한다.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이동수단을 넘어 안전과 건강이 포함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카림 하비브 기아자동차 디자인센터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래 자동차 디자인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전업계도 살균·소독 기능이 강화된 웰니스 가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예전에 정수기에 쓰였던 자외선 살균 기능을 갖춘 냉장고를 선보인 데 이어 헤파필터가 달린 전자식 마스크 제품인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비대면으로 단파장 자외선(UV-C) 램프나 소독액을 분무하며 살균하는 'LG 클로이 살균봇'을 최근 공개했다.

승객 감소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는 의약품 및 원료 배송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을 '여행'에서 '방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원료 물질을 영하 60℃ 이하의 냉동 상태로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까지 운송하며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 수송에 성공했다.

◇재택근무의 상시화…IT·전자업계 급부상 = 네이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사 비즈니스 협업 툴 '네이버웍스'를 지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워크'를 앞세워 기업과 단체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업무용 '협업 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시장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에듀테크(EduTech)에도 뛰어들었다. 비상교육, 교원그룹, 청담러닝 등 기존 교육업체들은 유아부터 성인교육까지 비대면으로 교육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화상교육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 수준별 학습 제공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솔루션이 도입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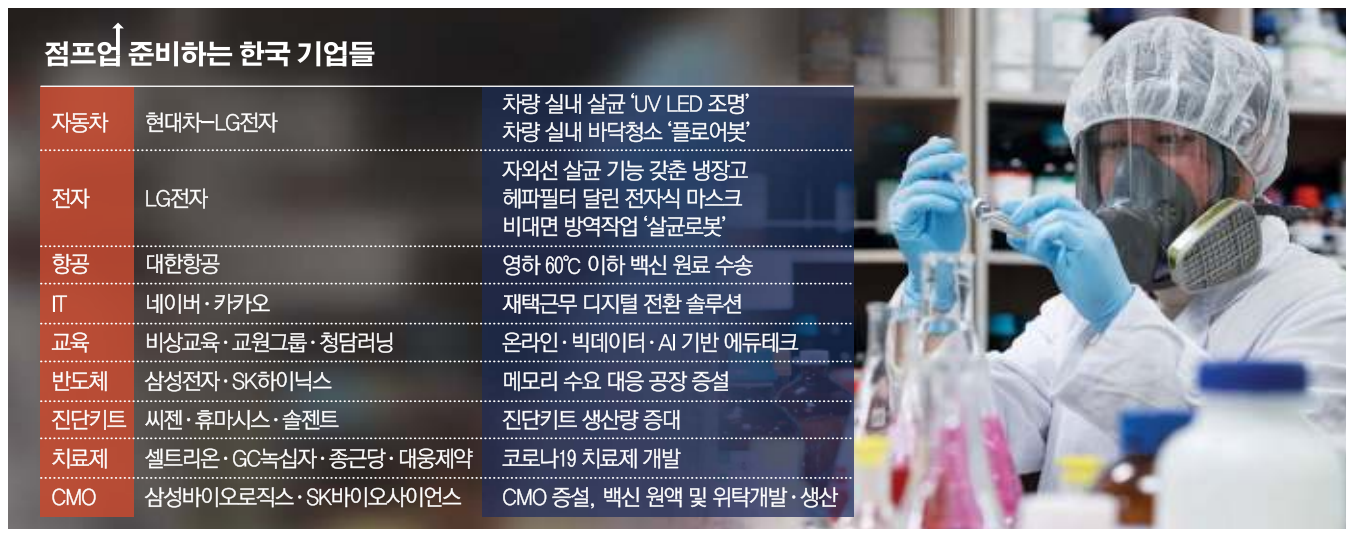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 산업이 팽창하면서 반도체 업계도 호황에 대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고객사는 서버 증설을 위한 메모리 재고 확보에 나섰고, PC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2라인 반도체 2기 등 대규모 증설을 준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천 D램 공장 내 EUV(극자외선) 라인 구축을 시작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파트너스의 서울사무소 박영언 부사장은 "수년간 많은 기업이 시도해왔지만 자리잡지 못했던 재택근무, 온라인 전환 등을 코로나19가 단 7개월 만에 불러왔다"고 말했다.

◇재평가받는 'K-바이오' = 진단키트 선두주자인 씨젠은 5개 생산시설을 새롭게 구축해 코로나 19 진단키트 생산능력을 기존보다 2~3배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장형 신속검사 전문기업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생산 능력을 이달까지 3배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셀트리온, GC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등 제약 업체들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계획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면 이달 중 본격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CMO(위탁생산) 기지로 떠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촉발시키는 비대면 시장 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발전 등 새로운 산업 및 시장 트렌드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점프업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

자동차	현대차–LG전자	차량 실내 살균 'UV LED 조명' 차량 실내 바닥청소 '플로어봇'
전자	LG전자	자외선 살균 기능 갖춘 냉장고 헤파필터 달린 전자식 마스크 비대면 방역작업 '살균로봇'
항공	대한항공	영하 60℃ 이하 백신 원료 수송
IT	네이버·카카오	재택근무 디지털 전환 솔루션
교육	비상교육·교원그룹·청담러닝	온라인·빅데이터·AI 기반 에듀테크
반도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메모리 수요 대응 공장 증설
진단키트	씨젠·휴마시스·솔젠트	진단키트 생산량 증대
치료제	셀트리온·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CMO	삼성바이오로직스·SK바이오사이언스	CMO 증설, 백신 원액 및 위탁개발·생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충북 제천시 엔지켐생명과학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비대면 경제시대 과제는

디지털 소외 계층 접근성 높여야 고립감 해소 시스템 마련도 절실

코로나19가 인류의 일상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바꾸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쇼핑부터 업무, 수업, 제한적 진료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융과 의료, 유통·물류 등을 8대 비대면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2021년 1조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비대면 경제 시대'를 공식화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순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대면 서비스가 공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태유 세종대 유통산업학과 교수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무관하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한다"며 "기존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가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비대면 시대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동덕여대 교수)은 "비대면 경제 시대가 도래해도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는 오프라인 매장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직접 만지고 느끼며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실재감을 줄 수 있는 곳이 오프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경제 시대에 정부, 나아가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생산 현장이나 소비 매장에서 로봇, 키오스크, 인공지능 등의 기술 활용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고 고립감, 외로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비대면 서비스를 더 많은 이들이 누리기 위해 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비대면 경제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 진영보다 '내 삶' 더 관심

"너 '좋아요' 눌렀더라."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양진수(가명·22) 씨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흠칫했다. 진수 씨에게 페이스북은 뉴스 보는 용도다. 정치인이나 비평가들이 올린 뉴스와 코멘트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라 생각해 '좋아요'를 눌렀는데,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본인이 여태 달았던 댓글이나 '좋아요'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였다. 이후 의견을 남기기 조심스러워졌다.

◇커뮤니티로 배운 정치, 깊이는 '?' = 90년대생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커뮤니티'로 정치를 배우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 및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태도 조사'를 통해 20~30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률이 두드러진다고 발표했다. 40대(74.8%)와 50대(68%)에 비해 20대의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률은 84.8%, 30대는 86.4%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시절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의 가치관 및 관심사가 확실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SNS나 커뮤니티 활용은 활발하지만, 진수 씨처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익명을 바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의료인으로 4년째 근무 중인 이소영(가명·28) 씨는 지역 의료인 오픈 카톡방에 들어갔다. 인원이 많다 보니 극단적 의견도 넘쳐난다. 서로를 웃기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세 부리는 것 같은 내용도 눈에 띈다. 오픈채팅방 덕에 이슈를 따라가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려니 영양가 있는 말이 없어 입이 턱 막혔다.

커뮤니티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파편화된다. 박정연(가명·28) 씨는 "기존에는 포털이나 신문을 보고 팩트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카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것만 '링크' 형태로 공유된다"며 "본인들 먹고사는 문제거나, 본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고 접할 일도 없다. 사실 현생(현실생활) 살기 바쁘다"고 얘기했다.

무비판적인 시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주영(가명·25) 씨는 "커뮤니티에서는 글 작성자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나 대신 세워준다. 정치 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있어 보이는 단어로 얘기하니 맞는 말일 거로 생각한다"며 "젊은 신인이 비례 아닌 지역구로 당선됐다는 뉴스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산됐다는 얘기에 더 기뻐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이나 정치인보다 당장 먹고사는 이슈가 눈앞이다 보니 입맛에 따라 맹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견 표출 늘었지만…

커뮤니티 통해 각종 정보 공유
가짜뉴스마저 여과 없이 수용
얕은 정보 탓 진지한 토론 못해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촛불세대'

세월호·대통령 탄핵 등 경험
19세·20대 투표율 꾸준히 증가
국민 청원으로도 영향력 행사

90년대생의 정치 생태계 전망은

관심없는 다수와 소수의 공존
이미지 정치화 전락 가능성도

◇정치 효능감은 ↑, 현실 정치 반영은 ↓ = 90년대생들은 정치 참여 효능감이 높다. '내가 움직여야 사회가 변한다'를 내재화한 세대다.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니 이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김재현(25) 씨는 "90년대생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정부와 언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대통령 탄핵을 통해 대중이 힘을 모은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체감했다"며 "90년대생들은 국민청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형태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은 58.7%다. 92년생이 첫 선거를 치렀을 2012년 제19대 총선 19세 투표율 47.2%, 2016년 제20대 총선 20대 전반(초반) 투표율 55.3%와 비교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대 총선 대비 19세의 투표율이 53.6%에서 21대 총선 60.9%로 가장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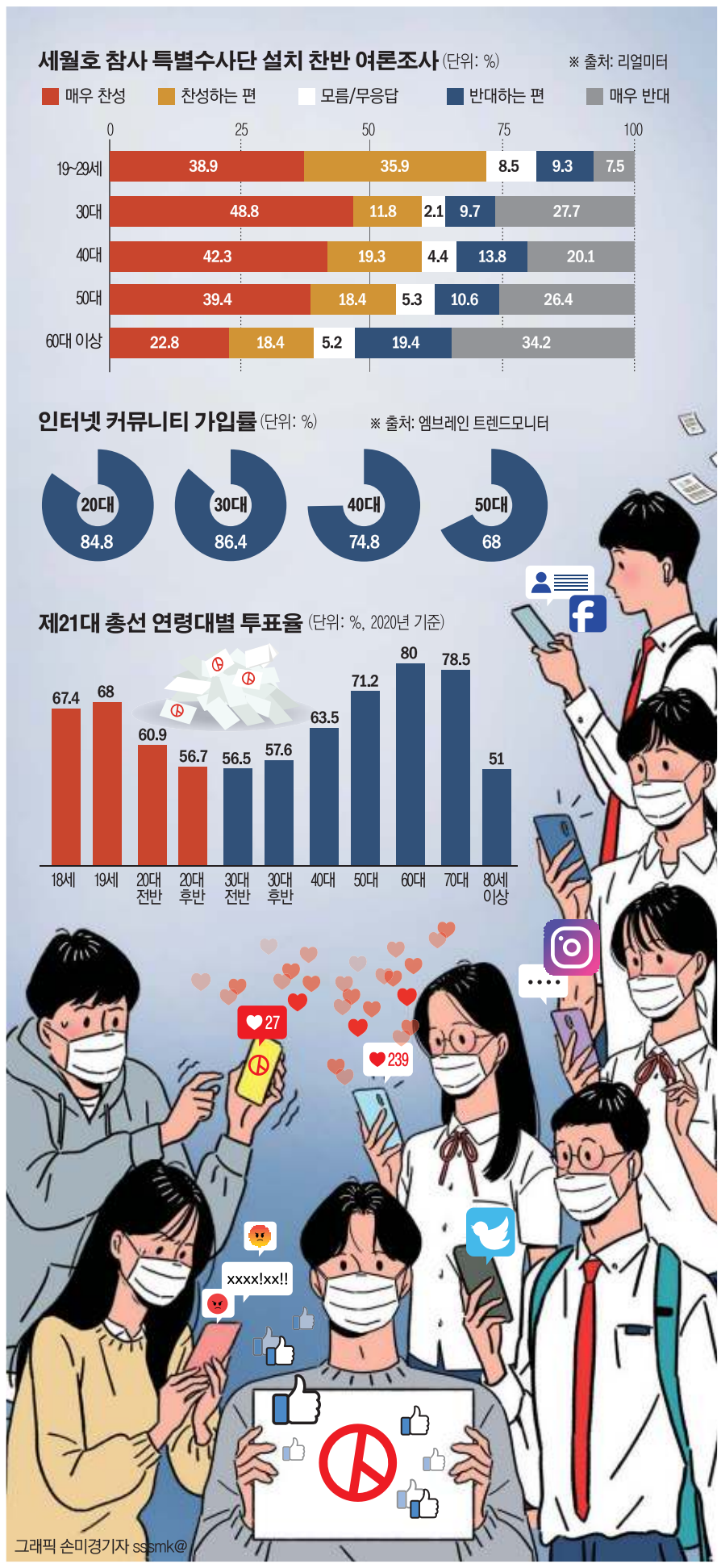
이들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서 튕겨 나오면 문제가 발생한다. 하진경(가명·25) 씨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싸운다고 하는데, 이게 내 일상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며 "페미니즘 이슈와 검찰 개혁 이슈를 밀레니얼 세대에게 들이대보면 무조건 전자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대결 구도보다 '내 삶'과 가까운 이야기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름만 들어봤지 둘이 왜 싸우는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혁준(가명·26) 씨도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을 보면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실 정치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겪었던 내용이 너무 다르고 현실 정치에서 정해진 내용이 지켜진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 씨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한 달 넘게 대기하던 중, 급작스레 기준에 어긋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담당 기관에 항의 전화를 걸어도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지 씨는 "정치를 욕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피드백이 없으니 굳이 욕을 하고 관심을 가질 바에는 그냥 본인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지나친 비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 씨는 "지역이나 부모님 성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봤다. 자기의 신념에 맞게 선택하는 추세가 역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소수자나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는 걸 보면 젊은층에서 내는 목소리가 조금씩 반영되는 것 아닐까"라고 기대했다.

90년대생들은 향후 정치 생태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양 씨는 "관심 있는 소수와 관심을 꺼버린 다수가 갈릴 것 같다. 제발 투표 좀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 투표율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며 "평소에 깊게 안 보다가 투표를 하면 그래도 착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다. 이미지 정치로 천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그래픽 손미경기자 sssmk@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대 여성 정치인'은 여전히 국회에서 낯선 존재

류호정 정의당 의원

새로운 선배 의원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 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익숙하다. 21대 국회 평균 연령은 54.9세. 여성 비율도 17%에 불과하다. 전 국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20대 여성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처음 국회에 입성했을 땐 출입을 제재당하기도 했다. 편한 차림의 어린 여성 의원이 익숙지 않은 탓이었을까. 50대 중반 남성이 평균인 국회에서 가장 '낯선' 존재인 건 사실이다.

국회에 청바지, 원피스를 입고 오는 의원이 내가 처음은 아니었다. 본회의 발언대에 청바지를 입고 오른 의원도 있었고, 원피스를 입고 업무를 보는 의원도 왕왕 있었다. 낯선 게 튀어 보였던 거지 없던 게 아닌데. '청년 여성'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지게 다양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사람의 첫 질문은 '원피스'
옷차림에 출입 제재당한 적도

기성 정치, 청년·공정 논하지만
경쟁만 하는 사회 문제 제기해야

청년 여성 등 수식어 사라지고
다양한 정치인 많아졌으면…

국회 입성 6개월차. 그래도 이 낯섦에 서서히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던 '그 원피스'가 첫 번째 질문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종종 문자가 온다. 대개 또래임을 밝히며 오는 문자들이다. 검색으로 어렵지 않게 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메시지들이 온다.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 안에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된다는 문자들이다. 고르고 고른 말들을 보다 보면 편지를 받은 것 같다. 사실 법안에 대한 질타도 적지 않다. 여기서 내가 잘해야 다음 청년 정치의 기회가 오려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누군가는 내 행보를 '쇼'라고 한다. 소수 정당이다 보니 큰 당을 움직이려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홍보해야 국민에게 전달되고 여론이 움직인다. 그마저도 없으면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전달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 한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요즘, 특히나 청년들이 힘든 시기다. '먹고사니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다. 기성 정치에서는 청년 이야기를 하고 공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되레 청년들이 공정 프레임에 갇히는 데 일조했다. 청년들이 타인의 행복에 박수를 쳐줄 수 없게 돼버렸다. 조국 국면에서 정의당이 낸 메시지 또한 이도저도 못했다. 공정은 경쟁을 전제로 한다. 공정에 천착하기보다 경쟁만 하는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국회에 조금 적응해 나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아직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주변에선 첫술에 배부를 일 없다, 지치지 말라 응원한다. 청년 노동자 제도, 데이트 폭력, 임금체불방지법 등 할 게 많긴 하다. 나더러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라 부르는데 청년 정치인이 청년정책만 하고 여성 정치인이 여성 정책만 하라는 법이 있나. 그래도 뭐…열심히 해야지. 박소은 기자 gogumee@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한 기사입니다.

'반칙 없는 사회' 이뤄야죠… 취업·결혼 벌써부터 불안

2002년생 윤종호(왼쪽부터)·하민재·박재현 군이 지난달 21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 eT라운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끝〉 **더 센 녀석들이 온다**
'2002년생'이 사는 법

90년대생 다음으로 어떤 세대가 올까. 스무 살을 목전에 둔 2002년생을 만났다. '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즉각 웃음이 터졌다. 진절머리를 치는 이도 있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1일 박재현(18·불곡고), 윤종호(18·삼각산고), 하민재(18·자운고) 군을 만나 대담했다. 윤예진(18·서문여고), 오승주(18·서문여고) 양과는 전화 인터뷰를 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꼰대식 발언, 말투 따라 조언 될 수도…

'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승주: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인생 선배의 조언이라 생각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다.

박재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바뀌기 힘드니까. 꼰대들이 말하는 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고도 생각한다. 요즘 시대에 안 맞을 뿐이지. 어쩔 수 없지만 좀 난감할 때가 있다.

기성세대 얘기, 시대에 안 맞아 잔소리라도 이해심 담겼으면…

하민재: 좋은 꼰대와 나쁜 꼰대가 있다고 본다. 잔소리는 하는데 내 말을 이해해주는 꼰대는 좋은 꼰대, 잔소리도 이해도 안 해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꼰대는 나쁜 꼰대다.

윤종호: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그랬다. 선생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선생님 말이니까 다 들어라'라는 식이었다. 본인이 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는 사람, 그런 게 꼰대 아닐까.

하민재: 나도 '꼰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후배들한테서다. 매일 늦게 잔다고 하고 피곤해하니 '일찍 자보는 건 어떨까?' 제안했었다. 꼰대 같다고 하더라. 당황스러워서 '나 꼰대야?' 직접 물어봤다. 그냥 말투나 잔소리하는 게 꼰대라더라.

윤예진: 똑같은 말을 전달하더라도 말투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꼰대식 발언이지만 좋게 얘기한다면 조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인생 선배로 겪은 게 있을 텐데….

도덕적인 측면서 기본 지켜져야

윗세대가 말하는 공정이란

윤종호: 공정?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된 건가? (조국 사태나 추미애 사태) 그냥 거의 모른다. 수험생이니 그런 내용에 관심 가질 시간이 부족했다.

박재현: 공정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높은 사람들은 능력이나 업적에 맞게 배분되는 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고, 아랫사람들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서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버려서 절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하민재: 더 나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약한 이들과 나누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좋은 사회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누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식 잘되라고 돈 주고 대학 가서 인맥 챙기고.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예진: 아무리 인복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인 선에서 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 조국 사태나 추미애 사태도, 솔직히 잘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직접 하는 건 다르지 않나. 잘못됐다.

오승주: 어차피 결국 다 드러나지 않겠나. 그렇게 얻은 것들이 행복할까? 나라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과 '주작'(조작을 뜻하는 은어)해서 얻은 것들은 차이가 크다.

친구도 못 보고 우울 학교의 소중함 느껴요

고3 시기에 코로나19 터졌는데

윤예진: 수능 끝나고 알바(아르바이트) 지원을 15개 정도 했는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안 왔다. 경력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살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윤종호: 이제 다 끝났다. 학기 초에는 좀 억울했다. 수련회를 못 가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편하게 못 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된다. 그렇게 제한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마냥 억울하진 않다.

박재현: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세게 잡았다. 쉬는 시간에 얘기하지 말고 카톡으로 대화하라고. 나중에는 그냥 평소대로 돌아갔다.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는 정도?

하민재: 우리 학교도 그랬다. 급식 먹을 때 한 칸씩 띄워 앉으니까 대화는 전부 다 사라진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대화도 많이 못 하고 이질감이 들었다.

윤예진: 성격이 밝은 편인데 집에 오래 있어 본 게 19년 인생에서 처음이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더라. 아무리 힘들고 가기 싫어도 학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오승주: 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치 못하게 계속 뒤로 밀려서 힘들었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 굉장히 특별한 고3 생활을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기억에 많이 남을 한 해다.

정당보다 정치인 '공약 이행률' 봐야죠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하민재: 투표를 한다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신뢰가 보장되는지, 말을 제대로 지키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당에서 그 인물이 어떤 실적을 남겼고 성취를 했는지 제대로 모른다. (투표권이) 생겨도 기권할 것 같다.

박재현: 투표를 해야 한다면 현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투표시간만 봐도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실패하면 복구하기 너무 힘든 사회다. 도전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딱 봐도 그렇다. 사업만 실패해도 죽는다.

학교만 봐도 공약 안 지켜 경제분야 중요하게 볼 것

오승주: 투표권이 생긴다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은 없지 않나. 그래서 투표 전에 정당보다는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을 따져보려고 한다.

윤종호: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던 게, 교과서에서 보던 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흥미롭다. 다들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경제를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다.

직장 다니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신의 10년 후 모습

박재현: 내일도 상상이 안 되는데…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된다. 얼마나 사회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민재: 시대 변화가 점점 빨라져서 필요한 것만 사회에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나보다 지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테니.

윤종호: 취업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신입으로 다니고 있거나 하면 좋겠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윤예진: 서른 살이면…남자친구와 함께 웨딩숍에 가서 드레스를 찾아보고 결혼할 준비를 하지 않을까. 물론 탄탄한 직업이 있다고 가정해야 하긴 하겠지만 말이다.

집 장만 어려워…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연애·결혼에 대한 생각

박재현: 결혼 안 하고 싶다. 이득 볼 게 없다. 해서 편해진 사람을 못 봤다. 책임감이 느는 게 약간 부담이 된다. 부양한다는 느낌이다. 요즘 워낙 20~30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한다. 저출산도 어쩔 수 없다. 나 힘들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안 낳는 게 맞다고 본다.

윤예린: 주변을 보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 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커서 하고 싶다. 눈 딱 떴는데 옆에 남자친구와 같은 침대에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려보고 싶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친구들도 이해된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친구들이 있다. 어머니는 집안일만 하시고 스스로는 챙기지 않으신단다. 자식만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친구도 많다.

하민재: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안 한다는 애들도, 아예 관심 없다는 애들도 있다. 대체로 결혼은 다들 꺼리는 것 같다. 살기 힘들다고 느끼고 경제도 아직 각자 먹고살기 바쁜 느낌이라.

가족 부양, 책임감 부담돼 여건 안 되면 출산도 안해

윤종호: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잘 모르겠다. 연애는 음… 놀이동산 가고 데이트하는 이미지다. 결혼은 집에서 술 먹는 느낌? 그런데 집 장만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나.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오승주: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가사가 생각난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가사가 있으니 아 그런가 보다 싶다. 요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작정 사랑한다고 결혼했을 때 이후 닥쳐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 "2029년까지 모든 열차 KTX-이음으로 대체"

새해 첫 경제행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찾아
KTX-이음 통해 그린·디지털·균형발전 뉴딜 박차
철도 2025년까지 70조 투자… "수출 발벗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KTX-이음(EMU-260)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공개 현장행보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운행 현장을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 첫 운행을 계기로 강원도 원주역을 방문해 5일부터 정식 운행되는 중앙선 원주-제천 간 노선에서 열차를 시승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일정은 KTX-이음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국민 안전을 위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을 시승한 자리에서 "파리기후협약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 같은 철도교통 혁신 구상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 개통으로 우리 철도 산업의 발전과 철도 산업이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결합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탄소중립 사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이음 열차가 그린뉴딜과 연결되는 것은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기관차(열차)의 70% 수준이고 전력소비량은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앞으로 중앙선 외에 서해선과 경전선에도 운행해 2024년까지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을 전체 노선의 5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지역경제 위기를 뒷받침해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철도시장 규모가 240조 원에 달하고 고속철도 시장의 경우 연평균 2.9%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철도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강국이 되고 디지털 뉴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혁신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뉴딜과는 LTE 기반의 4세대 철도무선통신망인 LTE-R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연관된다. LTE 단말 기능에 무전기능을 추가해 다자간 영상·음성통화가 가능하다. 유럽 등 주요국은 음성과 간단한 문자 전송만 가능한 2세대 통신망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 국내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한 LTE-R를 통해 고속·대용량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며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 간선철도망, 대도시·광역도시 철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 철도는 남북 대륙철도 진출을 꿈꾸고 있다"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가 올해 6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남북-러시아 시범 운행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정략적 활용 안돼"… 'MB·朴 사면론' 불편한 국민의힘

주호영 "말 꺼낸 이낙연 책임져야"
우상호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용도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사면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인 항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었다"며 "정치적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건 사면하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사면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이 대표께선 하신 말씀에 대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정도 말했으면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이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입장 표명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무슨 의도로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다"며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 당사자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측근들도 전직 대통령들을 "시중 잡범" 취급한다며 반발했다. 또 14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최종심 선고를 앞둔 '간 보기' 아니냐는 불쾌감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부터 가지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한마디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 '세계 최저'

올 연료비 연동제로 더 낮아질 듯… 유가 상승 땐 인상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는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8.02펜스(약 116원)로 집계됐다. 이는 IEA 회원국인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IEA 회원국 중 OECD 26개국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은 kWh당 16.45펜스로, 한국 요금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로 kWh당 26.17펜스였다. 이는 한국의 3배 이상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필요 이상의 전력을 소비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왜곡 현상'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는 연평균 1.5%(2010년 이후)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이미 세계 최저가의 전기요금이지만 올해는 더 싸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저유가 상황이 올해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에는 kWh당 3원, 2분기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다만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장 내달부터 재신청 가능

2019년 월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 시 지급

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생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받은 사업장도 내달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도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장들이 급증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도 속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수는 8만2123개다. 이는 2019년 한 해 신청 사업장(1514곳)보다 54배 많은 것이다.

다행히도 해가 바뀐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지원 기간을 다 소진한 사업자로선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게 됐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작년 매출액 등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해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작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는 매출 급감 등으로 유급휴업·휴직에 나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절반 줄인다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8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20%까지 확대하고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현재의 50%,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80% 넘게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강정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우선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SK hynix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언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증시·가상화폐 오른다"… 투자자 '위험자산 영끌 베팅'

백신·부양책 등에 '증시 낙관론'
비트코인, 연초부터 신고점 행진
글로벌 펀드, 신흥시장 투자 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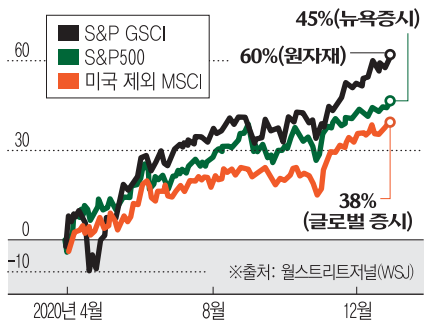
주식, 가상화폐에서 신흥국 자산에 이르기까지 2021년 새해 들어 모든 돈이 위험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새해 글로벌 증시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증시의 흐름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상화폐 랠리도 전혀 쇠퇴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연초 충격을 딛고 거침없는 랠리 행진을 이어간 끝에 역사적인 반전을 이뤘다.

글로벌 상품 가격을 종합한 S&P GSCI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던 지난해 3월 말 이후 지금까지 약 60% 뛰었다. 같은 기간 S&P지수 상승 폭은 45%, 미국을 제외한 MSCI 주가지수(MSCI AC World ex USA index)는 38%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원자재와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모두 가파르게 오른 것은 이번을 포함해 50년간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며 "직전 랠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던 2009년이었다"고 분석했다.

주요 위험자산의 지난해 3월 말 이후 9개월간 상승률 추이 (단위 : %)



더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재택근무와 이동 제한 혜택을 봤던 애플 등 IT 업체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맥모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새해 글로벌 증시도 작년의 랠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강하다. 블룸버그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이 계속해서 경제 회복을 촉진, 기업 실적도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에 주가가 새해 높은 수준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코톡 컴버랜드어드바이저스 회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유동성 버블을 계속 유지시키는 한 증시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심리 설문조사에서 지난달 24일 '향후 6개월간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44%에 달했다. '하락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2%로 그 비율이 수년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새해 금융시장의 뜨거운 랠리를 주도하는 자산은 바로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전날 3만30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이날 다시 3만4000달러(약 3692만 원) 문턱을 넘는 등 새해 벽두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가격도 이날 921.92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인 959.15달러를 기록했던 2018년 2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900달러 선을 다시 넘었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견고해 새해 신흥시장 투자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지난달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최근 신흥시장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4번째 하원의장… 의사봉 치켜 든 펠로시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개원한 제117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에 재선출된 후 자신만만하게 의사봉을 들어 보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216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공화당의 경쟁 후보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 2007년 여성 최초로 하원의장에 선출된 뒤 3번의 임기를 거친 펠로시 의장은 이로써 4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81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을 끝으로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내 票 찾아내"… 조지아주 장관 압박

"수십만 표 차이로 이겼다" 전화하며 막판까지 대선결과 뒤집기 '미련'

11·3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물밑에서도 계속되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의 대선 결과 최종 인증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 장관을 압박해 막판까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는 통화 내용을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으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래펜스퍼거 장관과의 통화에서 "선거 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며 선거 사기를 주장, 선거 결과 뒤집기를 요구했다. 그는 "1만1780표를 되찾길 바란다. 우리는 수십만 표 차로 이겼다"면서 "정확한 선거를 해야 한다. 당신은 공화당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 사람들과 미국인들이 화가 났다"며 "표를 다시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래펜스퍼거 장관은 "정확한 선거"라면서 "당신의 이의제기와 당신이 가진 데이터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WP는 전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만1779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에 승리를 거뒀다. 조지아주 당국도 2차 재검표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줄곧 공화당원인 조지아주 주지사와 국무장관에게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 뒤집기를 요청해 왔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일인 5일까지 래펜스퍼거가 행동하지 않으면 공화당 상원 후보인 데이비드 퍼듀와 켈리 뢰플러의 정치적 운명이 위태로워진다고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통화는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기 약 2주 전, 미국 상원 다수석 운명을 가를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6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의 대선 결과 최종 인증을 앞두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벼른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주정부 장관을 압박하며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종 인증이 나면 예정대로 20일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김서영 기자 0jung2@

印, 자국산 백신 긴급승인… 또 신뢰성 논란

3상 시험 아직 진행중… 野·의료계 "시기상조 부작용 우려"

인도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박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예방 효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신뢰성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인도 의약품관리국(DCGI)은 이날 자국 제약사 바라트바이오테크의 백신 코박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DCGI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도 이날 승인했다며 바라트바이오테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두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며 백신 승인을 환영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안에 3억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일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훈련을 시행해 9만 명의 의료진에게 우선 보급하는 지침을 설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에선 승인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코박신이 아직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 시민단체인 올인디아드러그액션네트워크(AIDAN)는 "아직 임상 중인 백신을 승인한 결정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인도 야당 수석 지도자인 샤시 사루어는 "아직 코박신은 3상 임상을 거치지 않았다"며 "승인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베누고팔 소마니 DCGI 박사는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백신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백신은 100% 안전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미열이나 통증, 알레르기 등은 일반적인 백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해명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의료진이 훈련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하고 있다. 뉴델리/AP연합뉴스

코박신의 예방 효과는 2회 접종 시 60%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앞서 자국산 백신을 승인한 중국과 러시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가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V'를 승인했다. 하지만 3상이 끝나기도 전에 승인한 데다 데이터 발표를 하지 않아 자국민조차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여론이 높았다. 러시아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출시를 조건부로 정식 승인하며 백신 경쟁을 본격화했다. 시노팜 측은 자사 백신의 효능이 80%에 달하고 항체 양성률은 99.5%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시험 경과와 부작용 사례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최혜림 기자 rog@

트럼프 "美 코로나 통계 과장" 불신 파우치 "병원 와서 직접 봐라"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 내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과 설전을 벌였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 정부는 주 정부들의 접종보다 빠르게 백신을 배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부의 노력을 과시했다. 이어 "중국 바이러스의 확진 사례와 사망자 통계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어이없는 방식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과장됐다"며 "이건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은 '레임스트림 미디어'로부터 대단한 전문가인 양 존경받고 있다"며 "그들은 그가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그 역시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백신 정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파우치 소장에 대한 뉴스 역시 가짜뉴스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레임스트림 미디어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등을 보이는 주류 언론을 비하할 때 줄곧 사용하던 표현이다. 트럼프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자신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언론으로부터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통계가 과장됐다는 논리를 펼쳐 반발을 샀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통계로부터 우린 도망칠 수 없다"며 "여전히 하루 30만 건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에 2000~3000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들은 진짜 사망한 것"이라며 "병원에 가서 의료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침대는 줄지어 있고, 지친 의료 인력은 바닥이 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파우치 소장은 "그건 진짜다.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현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45만 명, 사망자는 35만 명을 각각 돌파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파우치 소장(왼쪽)과 그를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고대영 기자 kodae0@

함께하는 100년 농협

초협력으로 함께
무한 성장을 이뤄갑니다

세상에 흩어진 다양한 능력과
생각을 만나게 합니다
성장을 넘어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탄생시킵니다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가치들이 한데 모여
무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초협력

초협력으로 함께하는 농협이 되어
농업인, 국민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NH 농협

‘농협맨’ 손병환·권준학 “고객·디지털·ESG” 한목소리

NH농협금융·은행, 경영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치로 불완전판매 예방 프로세스 정비

디지털 플랫폼 구축 특화 서비스 사회적 책임 앞장 본연 가치 구현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2021년 경영 목표로 ‘고객 중심, 디지털 금융,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제시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4일 취임식에서 “고객의 신뢰 확보는 기본”이라며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금융 회사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했다. 신뢰 산업인 금융업에서 고객의 신뢰는 산업의 존재 기반이라는 뜻에서다. 손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며 내년 경영 방향을 밝혔다.

손 회장이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 것은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손 회장은 “향후 불완전판매나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와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이라며 “농협 금융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행장 역시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혁신해야 한다며 손 회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권 행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시장 환경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 고객, 현장 중심의 마케팅과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금리 조건이 좋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행장은 영업 채널과 사업 전략 전반을 고객, 영업 현장 지향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디지털 전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손 회장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선도 금융 회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경제·금융·유통 정보를 결합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과의 제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금융 필요성에 공감한 권 행장도 “디지털금융 혁신은 농협은행의 미래가 달린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행장은 “고객 중심의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강화, 빅테크 제휴, 디지털 신사업 육성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과 권 행장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농협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ESG 경영을 꼽았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전사적으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탄소 배출 감축 등을 힘쓰겠다”고 했다.

권 행장도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으로 농업 금융 전문 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은행으로서 사회적 경제 기업 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 bean@

한화생명, 3분할 조직개편… 디지털 강화 ‘올인’

김동원 전무, 전략수립 지휘 ‘보험·신사업·전략’ 체계 구축 미래 경쟁력 확보·성과 극대화

한화생명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사진〉 전무가 전략수립을 지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한화생명은 이전 1부문 1총괄 15개 사업본부 66개팀에서 3부문 1총괄 4사업본부 11클러스터 35개팀으로 변경됐다.

특히 보험부문·신사업부문·전략부문의 3개 부문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또 새로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드형 조직을 도입했다. 노드는 자율책임하에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규모 조직 형태다.

보험부문은 보험영업, 투자사업 등 보험사업 본연의 기능 및 지원조직으로 구성됐다. 개인영업본부·전략채널본부·투자사업본부·사업지원본부 등 4개 사업본부로 이뤄졌다. 상품개발·보험심사·언더라이팅 등 영업 지원을 위한 업무가 포함된 사업지원본부를 신선해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새롭게 신설된 신사업부문은 기존의 디지털 영역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솔루션 신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또 전략부문에서 수립되는 새로운 사업발굴분야에 대한 사업화도 함께 검토하고 집행한다.

신사업부문은 라이프 솔루션과 파이낸셜 솔루션, OI·투자, 빅데이터, 테크, 서포트 등 6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됐다. 상호 연관성이 높은 노드를 탄력적으로 연계·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클러스터는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노드들의 집합체다.

전략부문도 신설했다. 전략부문은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인 김동원 전무가 겸임한다. 미래전략·거버넌스·해외·컴플라이언스·전략지원 등 5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됐다. 회사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 실행 및 해외 진출 지역 신사업 전략을 수행한다. 또 신규투자에 대한 발굴도 함께 진행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케뱅 “앱 첫 화면서 모든 은행 계좌 한눈에”

오픈뱅킹 중심 UI/UX 전면 개편

케이뱅크는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는 등 앱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케이뱅크 앱 하나로 타 금융기관 계좌 조회·이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UI/UX(사용자 환경 및 경험)를 개선했다.

케이뱅크 고객은 자신의 니즈에 따라 계좌 조회화면 스크롤 방식을 세로·가로 두 가지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 은행 및 계좌들이 정렬되는 순서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앱 상단에 올리거나, 계좌 별 이름을 설정해 정리하는 등 고객 편의에 따라 첫 화면을 조정할 수 있다. 전체 계좌 총 잔액도 앱 최상단에 표기해 흩어진 내 돈을 모아 볼 수 있게 했다.

고객 개인별 상황에 맞춘 ‘금융 메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도 신설했다.

타임라인을 통해 입출금 및 이체 내역은 물론, 자동납부로 출금될 금액을 미리 공지받거나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받는 등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개편을 통해 오픈뱅킹으로 등록한 모든 계좌를 복잡한 절차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첫 화면에서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오픈뱅킹으로 등록된 모든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11일 개막하는 'CES 2021' 관전 포인트

왼쪽부터 삼성전자 'CES 2021' 프레스 콘퍼런스 안내장, 인공지능 '네온' 베타버전, 하만의 '디지털 콕핏', 삼성 마이크로 LED TV.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LG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말한다

삼성, 인공지능 '네온' 업그레이드
TV 전략 제품 6일 온라인 언팩
LG, 첫 '롤러블폰' 공개 가능성
명품 시그니처·오브제 가전 전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대표 전자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참가 기업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상 첫 온라인(All-Digital)으로 열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년 CES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새해에도 가장 주목받을 기업으로 꼽힌다. 두 회사 모두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는 'CES 2021'의 주제를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Better Normal for All)으로 정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보다 나은 일상'(Better Normal)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과 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삼성전자의 프레스 콘퍼런스에는 승현준(세바스찬 승) 삼성리서치 소장(사장)이 대표 연사로 나선다. 승 소장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보다 나은 일상' 구현에 기여할 삼성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12일부터 운영되는 디지털 쇼케이스에선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을 포함한 주요 신제품들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정식 개막에 앞서 6일 올해 TV 전략제품을 선보이는 'TV 퍼스트 룩'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미니LED를 포함한 업그레이드된 QLED TV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발표한 마이크로LED TV 추가 라인업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NEON)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올해 공개된다. 네온은 실제 사람과 같은 형상과 표정을 본뜬 인공인간 시스템이다.

LG전자는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30분간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LG와 함께 홈 라이프를 편안하게 누리세요(Life is ON - Make yourself @ Home)'란 주제의 프레스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LG전자는 고객의 소중한 일상을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며 재미있게 누리게 해주는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차별화된 초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와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 등을 내세워 가전명가의 경쟁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롤러블폰'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LG전자는 로봇 라인업에도 힘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안내로봇, 홈로봇, 셰프봇, 서브봇 2종, 바리스타봇 등 6종의 제품을 상용화하고, 호텔·병원·식음료 현장 등에 투입한 바 있다. 이번 CES 2021에서는 살균봇을 비롯한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실생활에 적용된 '투명 OLED'와 TV를 볼 땐 평면으로 쓰다가 게임을 할 땐 곡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48인치 벤더블 CSO(Cinematic Sound OLED) 패널'도 최초 공개한다. 온라인 전시관은 스마트홈, 지하철, 레스토랑 등 실생활을 반영해 구성됐다. 그중 레스토랑 존은 손님과 요리사 사이에 배치된 투명 OLED를 통해 비대면 시대 파티션 역할과 동시에 메뉴 확인, 주문, 대기 시간 중 영상 관람이 가능한 환경을 보여준다.

한편 네이버, 코웨이, 한글과컴퓨터그룹, 나무기술 등도 AI, IoT, 로봇, 모빌리티 등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삼성전자 C랩 출신인 AI 스타트업 브이터치는 2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를 수상하며, 온라인 전시관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브이터치의 '가상터치 패널'은 사용자를 AI 기술로 분석해, 직접 만지지 않고 가리키는 위치와 동작을 인식해 멀리서도 터치와 같이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송영록 기자 syr@ ·노우리 기자 we1228@

왼쪽부터 LG전자 'CES 2021' 프레스 콘퍼런스 초청장, LG오브제 컬렉션, LG 롤러블폰 예상 이미지, 미니 LED 'LG QNED TV'. 사진제공 LG전자

한화솔루션, 태양광·수소 조직개편…대형 투자 밑그림

풍력발전 진출…수소기술硏 신설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부를 재편하고 수소기술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신성장 동력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우선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글로벌 GES(Green Energy Solution) 사업부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 여러 사업부에 흩어져 있던 개발,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금융 기능을 글로벌 GES 사업부로 통합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개발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한화솔루션은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개발 사업에서만 연간 5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확대 개편된 GES 사업부는 한화건설 출신 신동진 전무가 맡는다. GES 사업부는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를 위해 태양광은 물론 풍력 발전 사업 경험이 많은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발전소 개발 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사업부에서 분리해 한국 GES 사업부를 신설했다. 국내 발전 프로젝트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춘 국내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그린 수소 사업 강화를 위해 기존 수전해기술개발팀은 '수소기술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P2G(Power to Gas)의 핵심 기술인 수전해기술(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분야를 이끌어 온 손인완 상무를 센터장으로 선임하고 외부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그린 수소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강원도·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강원도 평창에 구축하는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은 별도 테스크포스(TF) 조직이 담당한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태양광과 그린 수소 분야에서만 국내외에서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로 차세대 태양광 제품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 수소 고압탱크, 수전해 분야의 연구개발(R&D) 인력이 대상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갤럭시S21, 15일 0시 베일 벗는다

삼성 온라인 언팩 초대장 발송

삼성전자는 15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전일 오전 10시) 온라인 갤럭시 언팩행사를 열고 최신 갤럭시 기기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삼성전자 뉴스룸과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언팩 행사는 온라인으로 열리는 네 번째 언팩 행사다. 플래그십 제품 공개 행사로만 따지면 두 번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 갤럭시Z폴드2, 갤럭시S20 FE(팬에디션) 등의 신제품을 온라인 행사를 통해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통상 그해 첫 플래그십 제품을 2월에 공개했지만, 올해는 한 달가량 출시 일자를 앞당겨 시장 선점에 나섰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2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반격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동영상 초대장<사진>에선 갤럭시S21의 카메라 모듈로 추정되는 형상이 등장한다. 큐브 안에서 신형 카메라 모듈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6.2인치 △6.7인치 갤럭시S21 플러스 △6.8인치 갤럭시S21 울트라로 출시될 전망이다.전작보다 베젤(테두리)과 카메라 부분 두께가 얇아지고 디스플레이가 플랫형과 엣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효성, 41명 규모 임원인사…조용수 부사장 승진

효성그룹은 4일 조용수<사진> 효성첨단소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총 41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원 선임은 18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임원 인사 규모(28명)보다 46% 승진자가 늘어났다. 통상 효성은 20~40명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해 왔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을 둬 이뤄졌다.

승진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실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췄다. 또,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용수 신임 부사장은 효성첨단소재 경영전략실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내외 사업 확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유진 기자 eugene@

'모두가 누릴 모빌리티 세상' 넥센타이어 신규 비전 선포

넥센타이어가 새로운 비전과 브랜드 슬로건을 선포하며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은 4일 영상을 통해 임직원에게 직접 비전과 브랜드 슬로건을 설명했다.

넥센타이어가 이날 선포한 비전은 'Next Level Mobility for All'(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빌리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이동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고객 곁의 든든한 지원자로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We Got You'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금영수증 발행이요?… 차라리 문 닫고 말죠"

르포 휴대폰 매장, 발급 의무화에 '우왕좌왕'

광진구 테크노마트 상당수 매장 "끊어준 적 없다"
"남는 게 없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중가격' 제시
통신사는 직영점 중심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계획

광진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올해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6층에서 만난 한 휴대폰 판매점 주인은 "현금영수증 때문에 죽겠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국세청은 새해부터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통신기기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신기기 소매업 약 2만5000곳이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사업체는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강변 테크노마트 6층에는 약 200여 개의 대리점, 판매점이 있고 다수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있어 총 사업자는 약 15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만난 상당수의 사업자 모두 법 시행이 됐지만 1일부터 이날까지 현금영수증을 끊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됐는데도 사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3일째인 현장에서는 혼선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A 씨는 "토요일이 제일 사람이 많은 날인데, 어제 오후 3시까지는 영업을 그냥 안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판매 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게 되면 보조금 지급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동네에 있는 판매점들보다 마진을 훨씬 적게 받고, 대신 많이 파는 방식인데 현금영수증 끊으면 남는 게 없어진다"며 "현금영수증 끊으면 33만 원, 안 끊으면 30만 원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회피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안 그래도 어려운 때에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불법보조금 역시 불법 영업에 속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오히려 휴대폰을 싸게 사려는 수요는 더 늘고 있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20년간 판매점을 운영한 C 씨는 코로나로 유동인구가 줄긴 했지만, 일명 '성지'를 찾는 사람들은 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비싸게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하며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사는 사람은 방통위원장 정도 뿐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즉,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증가해 불법 보조금 수요는 줄지 않고, 이에 따른 불법 영업도 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판매점을 하는 D 씨는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반 토막"이라며 "학원 등 다른 집합제한업종만큼은 아니지만, 유동인구가 줄다 보니 영업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통신사들은 직영 대리점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사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법 위반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 원이다.

글/사진 이지민 기자 aaaa3469@

국가R&D 연구비 사용 자율성 높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연구기관 자금운영 권한 확대
부처 승인 없이 사용계획 변경
일부비용 다음 해로 이월 가능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돼 연구개발(R&D) 현장의 변화ㄱㄱ를 이끌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4일 밝혔다.

혁신법 제정과 함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년) 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 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연구비 정산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다.

기술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정액기술료는 폐지했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경상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해 올해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전통시장 찾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조봉환(오른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중부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 중리전통시장,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해 새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조 이사장은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필두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 중심형 정책지원을 적극 수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화페인트, 항바이러스 페인트 '안심닥터'

"바이러스 닿으면 99.9% 사멸"

삼화페인트공업이 독자 개발한 특수 다공성 항바이러스 무기물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항바이러스 페인트 '안심닥터'를 출시한다.

삼화페인트는 실내공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기능 페인트를 전국 삼화페인트 대리점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출시일은 5일이다.

안심닥터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는 다공성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 중 바이러스가 페인트 표면에 접촉할 경우 99.9% 사멸된다. 순수 아크릴수지로 개발된 실내용 페인트로 냄새가 거의 없고 6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특수 기능성 첨가제를 통한 내오염성 및 세척성이 우수한 페인트로 콘크리트, 벽지, 방문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삼화페인트는 지난해 11월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등에 대해,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통해 바이러스 사멸효과 시험과 검증을 완료했다. '항바이러스, 항균, 항곰팡이 및 이지클리닝 특성을 갖는 친환경 수성도료 조성물'로 국내 업계 최초로 항바이러스 관련 특허 출원도 마쳤다.

항바이러스 도료 정식 출시에 앞서 삼화페인트는 해썹(HACCP) 인증 식자재 제조업체 화미를 비롯해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인 영화관 CGV 강남, 인천광역시청 등 상업시설 및 공공기관에 항바이러스 페인트 적용을 마쳤을 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도서관과 어린이집,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등 실내환경에 더욱 민감한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도 시공을 완료, 안심 공간을 제공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삼화페인트의 항바이러스페인트 '안심닥터'를 칠한 어린이집 전경. 사진제공 삼화페인트

올 게임 트렌드는 'IP 활용·크로스 플레이'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엔씨, PC-콘솔 '프로젝트TL'
펄어비스, '붉은사막' 개발 중

올해 게임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존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PC와 모바일, PC와 콘솔 등 두 가지 플랫폼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가 활발해질 것을 예상된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출시를 앞두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지난 2019년 처음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높은 기대감을 받는 게임이다. 올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 유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게임업계에서는 기대작으로 꼽힌다. 또한 '니노쿠니' 게임을 모바일로 재해석한 '제2의 나라'로 연내 출시한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래픽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MMORPG장르의 게임으로 수준 높은 3D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감성이 특징이다.

엔씨소프트는 콘솔 시장에 새롭게 도전한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리니지'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TL〈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TL은 PC와 콘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현실감을 더하고 다양한 전투의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출시된 트릭스터의 IP를 활용한 '트릭스터 M'도 올해 출시해 만나볼 수 있다.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을 통해 게임 시장을 잡는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의 대표 게임은 '검은사막'의 후속편으로 그래픽과 세계관, 전투 등 모든 요소를 잡겠다는 목표로 개발됐다. 기본적으로는 콘솔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PC와의 크로스플레이도 지원한다. 기획 시점부터 콘솔 버전으로 창조돼 콘솔 조작에 특화돼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牛步萬里·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 리를 간다〉

박카스에서 구구콘까지… '우보만리' 걷는 소띠식품

식품업계 대표 소띠 상품 ❶ 브랜드 전통장점 ❷ 혁신 전략 ※출처: 각 사

동아제약 '박카스'
- 출시연도 : 1961년
- ❶ 국민 대표 피로해소제
- ❷ 예스24, 배스킨라빈스 등 컬러버레이션

농심 '양파깡', '고구마깡'
- 출시연도 : 1973년
- ❶ 새우깡 등 '깡' 시리즈 브랜드
- ❷ '깡' 광고 등 MZ세대 겨냥 마케팅

롯데푸드 '구구브랜드'
- 출시연도 : 1985년
- ❶ 100년 넘은 미국 '스탠더드 캔디'를 모태로 삼은 진한 초콜릿맛
- ❷ 레트로 감성 자극 디자인 리뉴얼

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
- 출시연도 : 1985년
- ❶ 대한민국 최초 간식 소시지
- ❷ 33년 만에 포장지 디자인 재단장 및 제품군 강화

삼양식품 '짜짜로니'
- 출시연도 : 1985년
- ❶ 춘장 페이스트로 전통볶음 맛 재현
- ❷ 카카오프렌즈와 손잡고 한정판 출시

매일유업 '카페라떼'
- 출시연도 : 1997년
- ❶ 국내 최초 프리미엄 컵커피 · 특허기술력으로 맛 개발
- ❷ 마일드 로어슈거, 카라멜 마끼아또 등 제품군 강화

1961년 출시 박카스 '환갑'… 73년 양파깡·85년 짜짜로니 정체성 유지하며 시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 인기 이어가

신축년에도 인기 명맥을 잇는 소띠 장수 식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환갑을 맞는 브랜드부터 이제 막 스무 살을 넘은 브랜드까지 스테디셀러도 다양하다. 이들 브랜드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비결은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가격상승률을 낮추고,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소띠 식품 중에서도 1961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은 동아제약의 박카스다.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지난해말 기준 누적판매량이 총 212억 병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박카스의 모태는 알약이다. 이후 앰플(박카스 내복액)을 거쳐 1963년 지금과 같은 드링크 형태로 재단장했다. 단, 가격(박카스D 기준)은 600원으로 착하다. 짜장면,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960년대와 비교해 현재 각각 100배, 120배 이상 오른 데 비해 박카스는 15배 오르는 데 그쳤다.

동아제약은 2017년 배스킨라빈스와 손잡고 박카스 소르베맛 아이스크림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엔 YES24와 손잡고 박카스 굿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박카스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1973년생으로는 농심 양파깡, 고구마깡이 있다. 새우깡이 출시된 이후 줄줄이 나온 '깡' 시리즈의 4~5번째 제품이다. 지난해 가수 비의 '깡' 신드롬에 힘입어 양파깡, 고구마깡의 매출은 감자깡, 새우깡 4종의 한 달 매출액이 지난해 7월 최초로 100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롯데푸드의 대표적인 빙과브랜드 구구아이스크림은 1985년생 소띠다. 출시 당시 개별포장된 구구 아이스크림과 떠먹는 구구크러스터까지 2종이 출시됐고 1990년에 구구콘, 2018년에는 구구바, 지난해에는 구구콘 피넛버터와 구구콘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를 추가해 끊임없이 진화 중이다. 출시 이후 판매된 구구구크러스터는 약 1억5000만 통에 이른다.

구구브랜드 인기 배경에도 시대 트렌드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있었다. 2019년 레트로 열풍을 반영해 출시 당시의 디자인을 적용해 리뉴얼한 구구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다.

스틱형 소시지 대명사로 꼽히는 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도 1985년생 소띠 식품이다. 2019년 기준 누적 매출은 1조5000억 원으로, 누적 판매량만 119억 개다. 국민 한 사람당 230개씩 먹은 셈이다. 햄·소시지 시장에 신제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어육소시지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진주햄 역시 36년 동안 변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고수하면서도 디자인을 바꾸는 등 젊은 세대들에게도 호감을 사고자 노력했다는 게 진주햄 측의 설명이다. 천하장사 소시지의 시그니처 이미지인 꼬마 씨름선수 캐릭터를 출시 33년 만에 재단장했다. 캐릭터는 유지하면서도 얼굴과 체형,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꾸며 레트로 감성을 자극했다. 최근에는 GS리테일과 손잡고 에너지바, 드링크제 등 이색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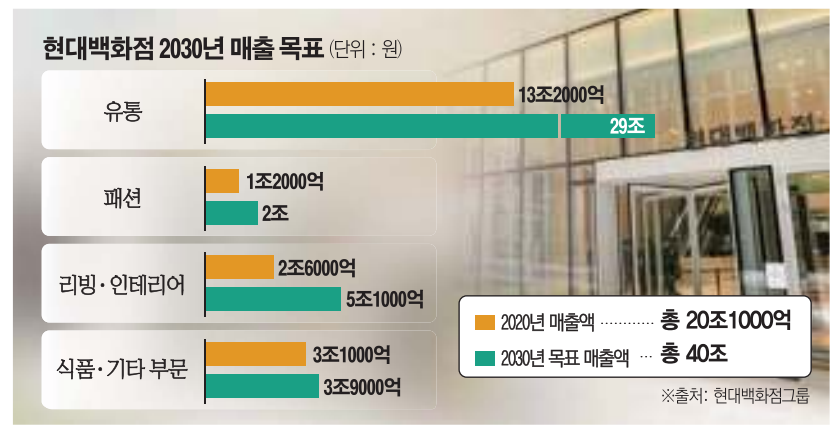
삼양식품의 짜짜로니도 1985년생으로 구구브랜드, 천하장사 소시지와 동갑이다. 1970년 삼양짜장으로 태어난 후 1985년 짜짜로니로 개명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삼양식품의 짜장라면 대표 브랜드다. 지난해 짜짜로니 월평균 매출액은 약 11억 원, 평균 판매 수량은 200만 개에 달한다.

매일유업의 마이 카페라떼는 올해 24살로 장수 소띠식품 중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1997년 생우유에 커피원두 추출액을 담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된 국내 최초 컵커피 제품이다. 차별화된 제품 콘셉트가 적중해 출시 5개월 만에 전체 RTD 커피 시장의 10%를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누적 판매량으로는 14억 개로 추정된다.

김혜지 기자 heyji@

창립 반세기 현대百그룹 "2030년엔 매출 40兆"

'비전 2030' 디지털 선포식 유통·패션·인테리어 핵심 뷰티·친환경 등 신사업 키워 10년 내 매출 2배 신장 목표



현대백화점그룹이 창립 50주년인 신축년 새해를 맞아 미래 청사진이 담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4일 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란 그룹 비전을 바탕으로 비전 2030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사회와 선순환하며 공동의 이익과 가치 창출을 통해 2020년 20조원인 그룹 매출을 2배로 늘려 2030년 매출 4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 패션, 리빙·인테리어 등 3대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신수종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을 강화한다는 포부를 함께 내놨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내기 위해 '비전 2030'을 수립하게 됐다"며 "'비전 2030'은 앞으로 10년간 그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부문은 백화점·아웃렛·홈쇼핑·면세점을 주축으로 업태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유관 사업으로 신규 진출을 통해 현재 13조 2000억원대 매출을 2030년에는 29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은 온·오프라인 채널의 융복합을 통한 핵심 경쟁력 고도화와 고객 경험을 확장하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방송 상품 중심의 전문몰 구축은 물론, 미디어 커머스 강화와 패션·뷰티 전문몰 론칭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글로벌 톱10 면세점 진입'을 목표로 국내 면세점 특허 추가 획득과 해외 면세점 진출을 함께 추진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내 제조 및 플랫폼 사업 영역과 시너지가 예상되는 뷰티·헬스케어·바이오·친환경·고령친화 등의 분야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뷰티 사업의 경우는 향후 메디컬 정보와 바이오 기술을 확보해 화장품·이미용품 등의 분야에서 각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사업 진출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은 계열사인 뷰티·헬스케어 전문기업 현대바이오랜드의 바이오 원료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원료(항산화, 피부개선)와 바이오 의약품(세포 치료제 등), 메디컬 소재 개발 및 제조에 나설 방침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마트 "방한용품 반값할인"

롯데마트가 이번주 영하 20도의 최강 한파에 대비해 13일까지 방한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겨울 필수품인 소프트 넥워머와 머플러를 정상가 1만 원에서 50% 할인된 5000원에 판매하며 아동용 귀마개와 머플러도 50% 할인 판매한다. 방한슈즈도 최대 50% 할인하며, 정상가 1만5000원인 성인용 패딩장갑은 할인가 1만 원에 선보인다. 또한 롯데마트 PB 브랜드인 '보니핏'에서는 울트라히트 피치스킨과 모달 상/하의를 9900원에 판매하며, 언더웨어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사과 대신 샤인머스켓… 명절 선물 세대교체

한우는 갈비 대신 구이 선호

명절 선물세트 세대교체가 활발하다.

이마트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코로나발 '언택트' 명절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며 고향집을 찾지 못하는 죄송함을 고가의 선물세트로 대신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올 설에도 '프리미엄 선물세트' 인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과일은 샤인머스켓으로 대표되는 트렌드 선물세트의 존재감이 커질 전망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사과·배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 과일 선물세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설 59.7%에서 2020년 설 56.4%로 3.5%P 감소했다. 빈자리는 '혼합과일 선물세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트렌드 과일 선물세트' 등이 채웠다.

특히 지난해 이마트에서 125%에 달하는 매출신장률을 기록하며 대세 과일로 자리 잡은 샤인머스켓은 선물세트 가짓수를 5종으로 다양화했으며, 기획 물량도 크게 늘렸다.

한우는 갈비 대신 구이용 부위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등심·채끝 등 구이용 부위 냉장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한우 선물세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설 41.0%에서 지난해 설 47.7%로 3년 사이 6.7%P 증가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간판 바꿔 다세요" GS25·CU, 새 점주 모시기

재계약 앞둔 편의점 대상으로 GS25, 코로나 위로금 지원 CU, 냉장·냉동보상보험 가입 상생 지원 가맹점 확보 나서

편의점 점포 수 1위를 다투고 있는 GS25와 CU(씨유)가 상생 지원을 통해 가맹점 모시기에 나섰다.

편의점 GS25는 어려운 점포 매출 활성화 지원과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 점포의 실질적 수익 개선을 위해 '2021년 상생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익부진점 및 매출재난지역 매출 활성화 지원 △자연재해 피해 위로금 지원 △모바일신분증 확인 서비스 운영 지원 △점포 운영 효율화 비용 지원 △뉴콘셉트 점포 투자 증대 및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 △뉴콘셉트 점포 전개 투자·자동발주 고도화·배달 서비스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점포 지원 등의 플랫폼 비즈 강화다.

수익부진점 및 매출재난지역 매출활성화 지원과 자연 재해 위로금 지원은 코로나19 등 예측불가능한 재해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도 2017년부터 초기안정화 제도 확대, 전기료 및 상품 폐기 지원, 폐점 시 부담 최소화 등 가맹점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CU가 내놓은 '2021년 가맹점 상생협약'은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강화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점포를 대상으로 냉동·냉장보상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냉동·냉장보상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인해 집기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상품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아울러 올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노무통합솔루션 앱(App) '퇴근해CU'를 내년부터 전국 1만 5000여 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편의점업계가 통상 5년 계약으로, 상당수가 올해 브랜드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는 시점인 만큼 양사의 1, 2위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코스피 3000 간다"… '황소장' 신호등 켠 첫 거래일

2.47% 오른 2944.45… 시총도 사상 첫 2000兆 돌파
삼성證 '3300' 신한금융 '3200' 목표지수 상향 잇따라
개인 1兆 순매수 상승 주도…"시장 과열" 우려의 시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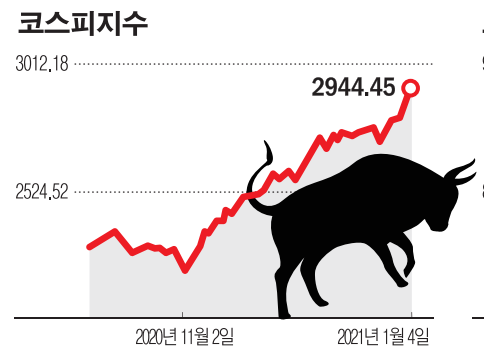
코스피가 새해 증시 첫날 3000선에 바짝 나가서며 올해 '황소장(Bull market·상승장)'을 예고했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98포인트(2.47%) 오른 2944.45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었다. 1등 공신은 1조300억 원 어치를 사들인 동학 개미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코스피 3000시대' 개막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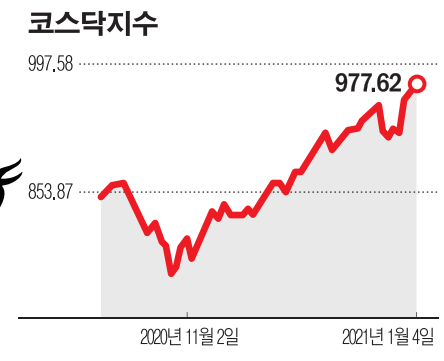
◇코스피 '3000'시대 초읽기= '3300', 삼성증권이 잡은 2021년 코스피 지수 상단이다. 국내 증권사 전망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말, '2021년 전망 보고서'를 낸 당시만 해도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를 2100~2850으로 관측했지만, 확 달라졌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되살아난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기류가 거세다"며 "공세적 재정투자에 기초한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층 더 강화돼 관련 수혜가 한국 증시를 향해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역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목표 지수를 3000 이상으로 줄줄이 끌어올리면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애초 2100~2700에서 3150~3200으로 올려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가세했다. JP모건 역시 한국 기업의 이익 증가를 전망하면서 내년 코스피 목표지수를 3200으로 제시했다. 올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새해 첫 증시를 이끈 마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삼성전자(+2.47%, 8만3000원), SK하이닉스(+6.33%, 12만6000원), LG화학(+7.89%, 88만9000원), 현대차(+8.07%, 20만7500원) 등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시가총액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2028조6440억 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977.62까지 치솟았다. 이는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0년 9월 15일 992.5포인트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반도체와 동학개미가 이끄는 한국 증시= 유례없는 한국 증시의 상승 랠리는 반도체와 동학개미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0만 전자' 전망까지 나왔다. 이날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면서 "반도체의 경우, DRAM의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단기 실적 부진보다는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엑시노스 점유율 상승, DRAM의 업황 개선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990년대 후반 '닷컴 거품'을 연상시키는 수준으로 시장이 과열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의 이익 대비 주가 비율(12개월 선행 PER)은 13배로 올라서며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국내 총생산(GDP) 규모를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선 다양한 증시 변수를 주목하고 있다.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실물경기 회복세가 제한되거나 정책 기대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희석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하면서 코로나19 통제력 확보 여부 역시 변수로 꼽았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압력도 증시에는 위험요인이다.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700선을 넘어간 벨류에이션부터는 사실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올해 상승 여력 역시 제한될 여지도 있다"면서 "내년 2분기에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오예린 기자 yerin2837@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대기업, 글로벌 기업과 시총 격차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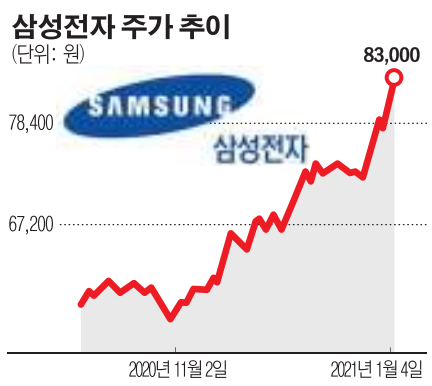
애플 시총 두 달 새 22% 증가
삼성전자는 43% 늘어나
현대차, 토요타 격차 15조 줄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시총 격차가 줄고 있다. 4차 산업,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글로벌 기업을 뒤쫓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84조 원(이하 30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약 2473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사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애플과 시총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연말 랠리를 달렸지만, 같은해 8월 미국 상장기업 최초로 시총 '2조 클럽'에 입성한 애플을 쫓아가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시 애플은 2년 만에 시가총액을 2배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두달만 놓고 보면, 격차는 줄어드는 분위기다. 애플 시총이 지난 11월~12월 22.84% 성장한 사이 삼성전자는 43.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과 배당 기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 29일 삼성전자가 2018년 4월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8만 원을 돌파했다. 특히 주력 신사업으로 확장을 꾀하는 파운드리 부문이 연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수주에서 성공하면서 성장 기대감을 부풀리는 중이다.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시가총액은 41조243억 원이다. 일본의 경쟁업체인 토요타 시총 273조9245억 원에 비해 232조9002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난해 시총 격차는 2019년 248조 원에서 15조 원 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는 친환경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6년간(2020~2025년) 60조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구글에 저항하는 '삼별초'로 떠올랐다. 2010년대 초반 2000억달러에 못 미쳤던 구글(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조 클럽'에 입성하면서 1조1755억 달러(1278조9701억 원)를 기록했다. 네이버의 현재 시가총액은 48조 원 규모다. 여전히 격차는 크다. 하지만 네이버 역시 플랫폼 강자로 성장하면서 구글과의 시총 격차를 줄이고 있다. 2019년 32.7배에서 2020년 26.6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갈길은 멀다.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수준이다. 5대 IT 기업인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페이스북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종가 기준 7조5481억 달러(약 8212조 원)다.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을 더한 금액보다 많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 혁신과 기존 산업과의 결합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금융위원장〉

은성수 "개인투자자 위한 제도 개선 금융위 신뢰 회복에도 만전 기할 것"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4일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올해 투자자 신뢰회복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00포인트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는 최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끝에 지난해 2873포인트로 마무리했다"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증시안정기금, 채안펀드 등 증시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 역시 작년 한 해 60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다"며 "기관투자자들도 그 위상에 걸맞게 증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올해에는 투자자 신뢰회복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금융,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 '급증'

투자 규모 48兆 중 7.5兆 손실·원리금 연체 가능성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가운데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투자 규모가 7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2개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으로 부동산 23조1000억 원, 특별자산 24조9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31조4000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 원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다소 정체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미국(17조7000억 원), 영국(5조2000억 원), 프랑스(4조2000억 원) 등 선진국 위주로 집계됐다.

투자 대상은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가 53%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어 호텔·콘도(19%)가 뒤를 이었다.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41%), 항만·철도(17%) 등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년 8개월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5%)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건은 3조6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7조5000억 원으로, 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체 투자규모인 48조 원의 15.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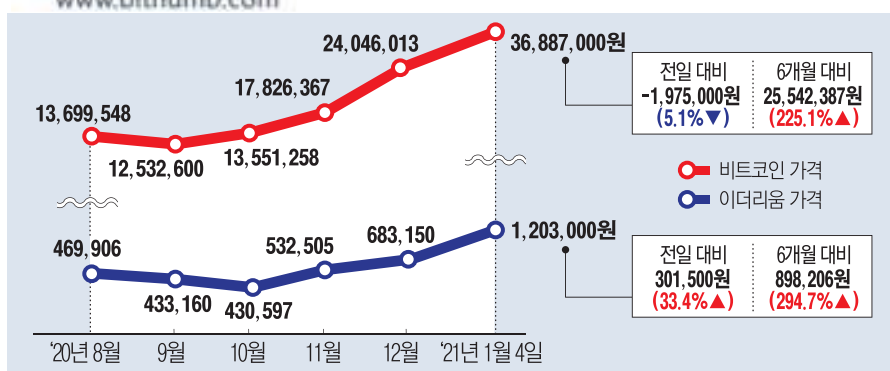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 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 손실이 우려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반기 1회)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ij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1월 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91,200	82,800 (20.3%▲)	이오스	3,324	399 (13.6%▲)
리플	275	30 (12.2%▲)	비트코인골드	10,150	730 (7.7%▲)
라이트코인	184,000	27,000 (17.2%▲)	이더리움 클래식	8,120	1,350 (19.9%▲)
대시	104,700	8,200 (8.5%▲)	퀀텀	2,870	379 (15.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용인 수지 '리모델링' 열풍…호가 치솟고 매물 '쏙'

'성복역 리버파크' 조합설립 인가…수지구서 6번째 단지

작년 초 4억 중반대 전용 84㎡ 1년 만에 2억 넘게 뛰어

새해 벽두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6번째 아파트가 나왔다. 수지구에서는 준공 15년 연한을 채운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리모델링에 뛰어들며 수도권에서 눈에 띄게 활발한 정비사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자 발 빠르게 리모델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는 최근 수지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이 단지는 전체 702가구 중 504가구(72%)의 동의를 얻어 수지구에서 6번째로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됐다. 상현동에서는 첫 리모델링 조합 설립 사례다.

1998년 준공된 성복역 리버파크는 최고 20층, 4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59㎡와 84㎡형으로 이뤄져 있다. 용적률이 253%로 높은 반면 건폐율은 15%로 낮은 수준이다. 수평과 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702가구에 일반분양 105가구를 늘려 807가구 규모의 단지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할 예정이다.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의 기존 단지명은 '만현마을동보2차'였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발맞춰 지하철 신분당선 역세권 입지를 강조한 성복역 리버파크로 이름을 바꾸고 도색 작업도 마쳤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받은 용인 수지구 아파트 단지

단지명	준공시기	가구수	위치
동아삼익풍림	1994년	1620	풍덕천동
보원아파트	1994년	619	풍덕천동
현대성우8단지	1999년	1239	풍덕천동
신정주공9단지	2000년	812	풍덕천동
한국아파트	1995년	416	풍덕천동
성복역리버파크	1998년	702	상현동

리모델링 단계가 진척될수록 아파트 매매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84㎡형은 지난달 6억7000만 원에 팔렸다. 전달 실거래가 대비 1000만 원 올랐다. 지난해 초 시세(4억 원 중반대)와 비교하면 일년 새 2억 원 넘게 뛰었다.

전용 59㎡형의 경우 지난달 5억6000만 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초만해도 3억 원 후반~4억 원에 팔렸다. 현재 호가는 6억 원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인근 R공인 관계자는 "강남과 가깝고 학원가도 몰려 있어 분당 등에서도 이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주거 여건 개선 및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수지구에서는 준공 15년 연한을 채운 단지들이 잇달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과 함께 경기권 정비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선 '초입마을동아·삼익·풍림'(1620가구), '보원'(619가구), '현대성우8단지'(1239가구), '용인수지 신정마을9단지'(812가구), '한국아파트'(416가구) 등이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상현동까지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로 용적률이 200%를 넘고 안전진단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추진 가능 연한이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30년)의 절반이다. 또 주민 동의율이 66.7% 이상이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75% 이상 동의)보다 수월하다. 비교적 건폐율이 낮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 같다.

수지구에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2만여 가구에 이른다. 1995년 준공된 풍덕천동 동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협력업체 선정에 나섰다. 인근 풍산아파트와 벽산아파트 등도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리모델링은 재건축 비해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다양한 평면 구성도 어렵다는 점은 한계"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첫 철회

조합원들 "임대주택 확대 의무가 집값 상승 발목 잡을 것"

공공재개발 공모 지역 중 처음으로 신청을 철회하는 곳이 나왔다. 공공재개발 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무가 집값 상승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제17구역'은 지난달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SH 등 공기업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답십리 17구역은 2011년부터 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SH공사 추산에 따르면 총 가구 수(326가구)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면 답십리 17구역에선 조합원 몫(146가구)을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90가구, 분양주택은 90가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보다 임대주택은 32가구 늘고 분양주택은 그만큼 줄어든다.

답십리 17구역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번복한 건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주택 감소 때문이다. 애초 답십리 17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아 사업성을 높이려 했지만, 임대주택 확대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공공재개발 참여를 결정했던 주민대표회의도 10대 2로 공공재개발 공모 결정을 뒤집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권유했던 SH공사도 여론에 밀려 서울시 등에 공모 철회를 통보했다.

이 같은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공모 실적만 봐선 공공재개발이 아직 흥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기존 재개발 구역 중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신규 추진 지역은 3월 말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재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임대주택 공급 규모와 규제 완화 정도를 놓고 답십리 17구역처럼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종화 기자 pbell@

대우건설, 2.9兆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수주

2013년부터 총 10건 4.1兆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알 포(Al Faw) 신항만 후속공사를 패키지로 계약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파르한 알 파르투시 항만공사 사장과 김진우 대우건설 현장소장은 총 5건의 신항만 후속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부터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측 방파제공사(2019년 6월 준공)를 비롯해 △방파제 호안 추가 공사 △컨테이너터미널 호안공사 △알포 접속도로 △코르 알 주바이르 침매터널 제작장 조성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수행 완료하거나 수행 중이다. 이번 후속공사 계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이라크 알 포 신항만에서만 총 10건의 공사, 약 4조1000억 원의 수주 누계액을 기록하게 됐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옅어진 초미세먼지 작년 관측이래 최저

전국 연평균 농도 19㎍/㎥
'좋음' 154일·'매우 나쁨' 없어
코로나 영향에 정책 효과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관측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호한 기상조건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전국 472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9㎍/㎥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전년 23㎍/㎥에 비해 17.4%가 감소한 수치다. 감소 폭도 최근 6년 사이 가장 컸고, 지난해 정부의 목표였던 20㎍/㎥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 대비 20일 감소해 관측 이래 최소였고, '매우 나쁨'(76㎍/㎥ 이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초미세먼지 '좋음'(0~15㎍/㎥) 일수는 전년 대비 39일 증가한 154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두고 △국내 정책효과 △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 영향 △양호한 기상조건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며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량, 선박 입출항수, 항공 운항편수 등이 감소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세먼지 정책의 효과는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지난해 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농도 감소폭이 최대 18㎍/㎥로 나타났고, 4~12월에는 최대 7㎍/㎥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측정되는 백령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1㎍/㎥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늘어난 평균 강수량과 바람이 없는 대기 정체일수가 줄어든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아직은 기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수송·발전 등 부분별 대책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공존의 정의 필요… 檢개혁 마무리 투수로"

"부동산 신고 누락은 제 불찰"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의가 인권과 정의롭게 어울리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고 수사권 조정,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대우해달라고요구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과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 정의가 인권과 함께 조화되야만 공존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검사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검사들과의 만남의 방식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며 "청문 통과해서 임명받으면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논란이 된 부동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더 잘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집안 선산 4만2476㎡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부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기영 기자 pgy@

"내 자리는 어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동성초등학교를 찾은 신입생 아동과 학부모가 빈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큰 수험생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 시험에 비춰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구제책 없이 시험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확진자나 고위험자가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할 위험이 있어 수험생들로서는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올컬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www.nanam.net
나남 nanam

올해 주요 신차는…전기차 아이오닉·e제네시스 '눈길'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과거 완성차 제조사는 6~7년 주기로 '완전 변경(풀 체인지)' 신차를 내놨다. 그 사이 3~4년 주기로 디자인에 소폭의 변화를 준 '부분 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이미 검증된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짜놨다. 이마저도 세단과 SUV 등 다양한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플랙시블' 플랫폼이다. 여러 차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뼈대를 갖춘 셈. 신차 개발 기간이 단축됐고 비용도 크게 줄였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2017년부터 동시에 25가지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과 기반을 갖췄다. 디자인을 비롯해 설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도 도입했다.

덕분에 3년여가 걸렸던 신차 개발 주기는 1년 6개월로 줄었다. 앞으로 이 주기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전기차 시대 원년 =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전략은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지면 신차 개발도 속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처음으로 활용한다. 이미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도 출범했다. 한때 친환경차 모델명이었다.

첫 모델은 아이오닉5다. 현대차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출발한 콘셉트카 '45'가 밑그림이다.

차 크기는 준중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CUV)다. 다만 차 실내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를 넘어설 만큼 넉넉하다.

아이오닉5는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 이상까지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 안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이르면 하반기에 아이오닉6도 공개한다. 현대차는 2024년까지 E-GMP를 활용한 전기차 3종을 출시한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모델이다. 중형 세단급인 아이오닉6는 포르쉐의 고성능 EV 세단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전기차 업체 '리막'과 공동개발 중이다. 800V급 고성능 EV로 알려졌다. 애초 출시 시점은 2022년으로 공언했다. 다만 2019~2020년 사이 대대적 신차 출시 이후 올해부터 신차 기근이 이어지는 만큼,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후문도 이어진다.

올 상반기에는 스타렉스 후속 모델을 선보인다. 사실상 국산차 가운데 유일한 '원박스' 형태의 승합차다.

새 모델은 2007년 출시한 그랜드 스타렉스의 후속이다, 승용 감각을 추가하고 혁신적 디자인을 앞세운 만큼, 모델명 역시 스타렉스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 이름으로 '스타리아'가 거론된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대열에 합류한다. 첫 주인공은 주력 모델인 G80이다. 현대차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대신 뒷바퀴 굴림 방식에 맞춰 개발한 전기차다. 전기차인 만큼 차명도 eG80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제네시스 소형차(콘셉트카 민트)도 올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시스는 이달 초 공개한 첫 중형 SUV 모델인 GV70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신형 G90도 이르면 내년 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K7과 스포티지 환골탈태 = 기아차는 상반기 준대형 세단 K7의 3세대 모델을 선보인다. 다만 방향성을 바꿨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아반떼와 K3 △쏘나타와 K5 △그랜저와 K7으로 짜인 경쟁 구도 수정에 나섰다.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차급과 장비, 가격 등에서 차별을 둬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K7 역시 차 크기를 키우고 경쟁차인 현대차 그랜저IG와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차 이름으로 K7 대신 K8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스포티지 5세대도 나온다. 디젤과 함께 하이브리드까지 라인업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등장한 기아차의 파격적인 디자인 혁신에 합류하면서 이례적인 디자인이 나올 것이라는 게 기아차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나아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준중형 CUV도 나온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내놓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기아차도 프로젝트명 CV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차 이름으로 '하바니로'가 유력하다.

앞서 언급한 기아차 전체 새 모델은 모두 새로운 엠블럼을 달고 나온다.

다른 완성차 메이커 역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준비 중이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완전변경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 4~5개 차종을 출시한다. 최근 대형 SUV 인기에 힘입어 쉐보레를 대표하는 대형 SUV '타호' 직수입도 추진한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신모델과 현재 판매되는 볼트 EV의 부분변경 모델 등 2개 차종 이상의 신차 출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종의 신차를 출시했던 르노삼성차는 내년에는 기존 차종의 연식 변경 모델을 중심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junior@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가 올해 쏟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신형 전기차의 밑그림이 될 콘셉트 이미지.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현대차그룹 전기차 봇물

아이오닉5·제네시스 eG80 출시

전용 플랫폼 'E-GMP' 본격 활용

기아차 새 CUV '하바니로' 유력

스테디셀러 모델 환골탈태

스타렉스 후속 '스타리아' 거론

K7, 크기 키워 K8로 내놓을 수도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추가

쌍용차 부활 키워드 '프로젝트 E·Q·J' 신차 3종 출격 대기

첫 전기차 프로젝트 E100

렉스턴 스포츠 부분변경 Q250

새 중형 SUV 'J100' 줄줄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쌍용자동차는 올해 3가지 신차를 계획 중이다. 기본적으로 제품군이 단순한 '니치(틈새)' 브랜드인 점을 고려하면 한 해 '신차 3종 출시'는 꽤 이례적이다.

먼저 쌍용차 최초의 전기차, 프로젝트명 E100이 새로 나온다. 이미 양산을 위한 절차도 마쳤다. 정부의 올해 전기차 지원 정책 발표에 맞춰 가격만 결정하면 된다. 코란도를 베이스로 개발한 새 모델은 국내 최초의 준중형 SUV 기반 전기차가 된다.

뒤이어 올 상반기에 렉스턴 스포츠(Q200)의 부분변경 모델 Q250도 나온다. 쌍용차 프로젝트명에 붙는 숫자는 변경 범위를 뜻한다. 완전변경은 100→200→300 순으로 이어가고, 그사이 부분변경은 150→250→350 순이다. 렉스턴 스포츠의 전신이 프로젝트 Q100으로 불렸던 엑티언 스포츠다.

G4 렉스턴이 올 뉴 렉스턴으로 변경된 만큼, 렉스턴 스포츠 역시 커다란 디자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중형 SUV 'J100'이 새로 나온다. 프로젝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전에 없던 새로운 신차다.

밑그림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했던 콘셉트카 XAVL이다.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에 자리 잡는 만큼, 회사 안팎에서는 차 이름으로 '무쏘(Musso)'를 거론하고 있다. 과거 전성기로 되돌아가겠다는 브랜드 전략과도 일맥 한다.

새 차는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 등이 경쟁하는 중형 SUV 시장에 뛰어든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출한 라이벌과 맞경쟁을 피하겠다는 게 기본 전략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엔진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J100의 경우 차 크기와 편의 장비 등에서 경쟁차를 앞서는 제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 중인 매각과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신차 출시 시점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을 신청,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마힌드라 역시 2월 말까지 지분 매각을 공언했다. 어려운 시기를 뚫고 주력 신차를 예정대로 출시한다면 이른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분석이다.

2009년 법정관리 때와 상황도 다르다. 11년 전에는 노조가 발목을 잡았고 매각조차 불투명했다. 신차도 개발 중이었던 코란도C가 유일했다. 다만 올해는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매각을 위한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쌍용차의 준중형 SUV 전기차 'E100' 티저(왼쪽)와 중형 SUV 콘셉트 XAVL. 쌍용차는 XAVL를 기반으로 한 신차 J100(프로젝트명)을 하반기 출시한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市 사업추진 과정 갈등, 해결의 시작은 대화"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2012년 이후 170건 갈등 관여, 87% 민원 제기 않거나 합의
시 사업 外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약자 돕는 게 할 일" 느껴

'45.8%, 54.6%, 57.4%, 60.9%.'

서울시가 2017년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갈등 인식조사에서 '갈등이 심각한 편'이라고 답한 비율이다. 조사를 시작한 첫해부터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부터 정치적 대립까지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홍수정〈사진〉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가 2012년에 이 직책을 신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갈등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를 포함한 12명의 직원은 8년간 170여 건의 사업에 개입했고, 이 중 87%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거나 합의가 됐다.

"처음에는 사업부서들이 갈등이라는 개념도 낯설어했어요. 갈등을 '상대방의 요구만 다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다 들어주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만 생각했죠. 이제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홍 담당관은 갈등 해결 방법으로 '대화의 시작'을 꼽았다.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되지 왜 대화가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행정에서는 사업 지연을 우려해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이 보통의 상식. 하지만 그는 대화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이 더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해요.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전이행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껏 법이 정한 규모와 대상만 실시했다면 이제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될 때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그에겐 잊지 못할 사례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의회와 본사가 대립한 사건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갈등조정을 약속하면서 홍 담당관도 이 일에 관여했다.

"이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다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당사자 간 합의가 돼 잘 해결됐지만 조정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기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홍 담당관은 갈등을 관리하면서 '생각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외향이나 행동을 보고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향성은 갈등 조정에서 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당사자들이 '갈등 조정하길 잘했다'며 고맙다고 할 때가 가장 뿌듯해요. 갈등 당사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사업 부지 인근 지역주민인 경우가 많아요. 조정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대화 자리를 마련해 줘 고맙다고들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고충도 있다. 성과를 평가할 때다. 갈등 조정은 과정이 중요한데 성과 평가는 결과를 중시한다. 그는 노력에 비해 보상을 얻기 힘든 구조다. 갈등 조정은 대화를 얼마나 시도했고 어떤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합의 여부만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갈등 조정은 힘들지만 계속돼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한복 입고 선서하는 '순자' 美연방의원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워싱턴주)인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스트릭랜드 의원 트위터

NH-아문디자산운용 박학주 대표

NH-아문디자산운용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로 박학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자산운용본부 본부장(상무)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박 신임 대표이사는 NH선물 상무, 농협손해보험 자산운용부장,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 상호금융 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대표이사는 농협은행 딜러를 시작으로, 농협손해보험 및 상호금융 자산운용총괄업무를 수행했으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그룹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삼성명장' 9명 탄생

20년 이상 근무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
전자 6명, 디스플레이·SDI·전기 1명씩

왼쪽부터 삼성전자 윤영준·김명길·고영준·김현철·정용준·정호남 명장, 삼성디스플레이 서성무 명장, 삼성SDI 김형직 명장, 삼성전기 박운영 명장.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가 4일 최고 기술 전문가인 '삼성명장'을 선정했다. 삼성전자 6명,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각 1명씩 총 9명이다.

'삼성명장'은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조 관련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노하우를 겸비한 직원을 최고 전문가로 인증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IT 현장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최고 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9년 '삼성명장' 제도를 신설해 첫해 4명, 지난해 3명을 선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에선 △생활가전사업부 윤영준(52) 명장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명길(51) 명장 △생활가전사업부 고영준(53) 명장 △메모리사업부 김현철(50) 명장 △파운드리 사업부 정용준(51) 명장 △글로벌 인프라총괄 정호남(50) 명장이 선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선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서성무(51) 명장, 삼성SDI에선 소형전지사업부 김형직(55) 명장, 삼성전기에선 기판사업부 박운영(51) 명장이 각각 뽑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김유상 대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김유상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신임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에 삼성생명에 입사해 △2009년 삼성화재 보상기획팀장(상무) △2012년 삼성자산운용 경영지원실장(상무) △2018년 삼성자산운용(부사장) △2020년 삼성자산운용 고객마케팅부문장(부사장) 등을 거쳤다.

손엄지 기자 eoml@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취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한국연금학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윤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정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 황준호 △디지털경제연구실장 이준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승진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본부장 김동순 △전북지역본부장 임태범 △동남권지역본부장 신진국 ◇단장 승진 △성장거점기획단장 조원갑 ◇센터장 승진 △스마트네트워크연구센터장 임용석 △데이터융합플랫폼연구센터장 문연국 △인공지능연구센터장 신사임 △융합신호SoC연구센터장 이성호 ◇본부장 전보 △스마트에너지·제조연구본부장 정인성 △광주지역본부장 이상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영기획부장 이영욱 △핵비확산기술지원센터장 김민수 △기획예산실장 한재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부서장 △성장지원사업단장 김서현 △팀장 △정책기획실 대외협력팀장 정진홍 △혁신지원사업단 사업총괄팀장 김준 △혁신지원사업단 제조혁신지원팀장 김소영 △혁신지원사업단 서비스혁신지원팀장 문상미 △성장지원사업단 글로벌성장팀 김규환 △성장지원사업단 제조로봇보급팀 오택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규 임용〉 △전파관리실장 전완표 〈신규 보임〉 ◇본부장급 △빛마루방송지원단장 홍종배 △전파자원관리단장 문광민 △전북본부장 허홍열 △제주본부장 염동석 〈전보〉 ◇본부장급 △감사실장 김규현 △경영기획본부장 김상재 △기금사업관리본부장 손기칠 △전파진흥본부장 하수용 △전파검사본부장 이민호 △기술자격본부장 박정근 △서울본부장 이영수 △부산본부장 김승현 △경인본부장 백남일 △충청본부장 신상철 △경북본부장 이종수

◆**극지연구소** ◇승진 △윤리감사실장 직무대리 조창희 △정책개발실장 최영준 △문화홍보실장 강민구

◆**대한건설협회** ◇실장 전보 △홍보팀장 김종현(기획조정실장 겸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 신황호 △정보관리실장 황승현 △서울시회 임성율 △서울시회 오병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파견 김영권

◆**한전KPS** ◇보직 이동 △K-ND혁신기획단장 서봉수 △총무처장 손영권 △정보통신보안실장 박창희 △해외발전사업처장 손춘호 △원자력사업처장 경현수 △서인천사업처장 복남근 △보령사업처장 강기석 △울산사업처장 김선진 △삼천포사업처장 김용봉 △영흥사업처장 강명식 △평택사업소장 전경복 △여수사업소장 이영수 △신보령사업소장 백영화 △안동사업소장 김종국 △분당사업소장 홍기철 △중부MSC센터장 이병훈 △복합MSC센터장 김광현 △한빛1사업처장 오진호 △한빛3사업처장 최종철 △한울1사업처장 최정석 △월성2사업처장 최춘범 △고리3사업소장 김경우 △월성3사업소장 민창식 △원전MSC센터장 이복동 △청평양수사업소장 이상탁 △무주양수사업소장 이상권 △삼랑진양수사업소장 배철성 △양양양수사업소장 엄영복 △청송양수사업소장 심백섭 △부산전력지사장 이은섭 △대구전력지사장 정태식 △광주전력지사장 홍기준 △원자력정비기술센터장 오성록 △화성사업소장 이구환 △동탄사업소장 황창익 △안양사업소장 김인출 △인도지사장 김용식 △해외MSC센터장 박종근 △인도네시아지사장 박덕진 △UAE본부 BNPP1사업소장 민종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부장급 전보 △투자심사부장 이상기

◆**IBK투자증권** 〈보임〉 ◇본부장 △디지털영업본부장 전장석 △자산관리본부장 이창섭 △Coverage본부장 이학연 △고객자산운용본부장 현진길 △감사본부장 박양수 ◇부장 △디지털전략부장 정재환 △디지털영업부장 이병준 △경영기획부장 유욱재 △투자분석부장 박옥희 ◇센터장 △IBK WM센터 중계동 센터장 오혜란 ◇팀장 △PIB팀장 김재호 △영업전략팀장 박정용 △영업관리팀장 이원형 △해외주식TFT 팀장 최광순 △구조화금융3팀장 강영호 △Coverage1팀장 곽철수 △전문사모운용지원팀장 안성희 △업무개발팀장 김진아 〈승진〉 ◇상무 △Sales본부장 정낙원 △구조화금융본부장 최미혜 △감사본부장 박양수 ◇상무보 △인천센터장 손관 △종합금융2팀장 이민철 △Coverage본부장 이학연 △고객자산운용본부장 현진길 ◇이사 △영업부 장보경 △디지털영업본부장 전장석 △금융상품영업팀 문재경 △투자금융팀 정현우 △채권운용팀 김용희 △채권영업팀 배영인 △부동산금융1팀장 정철윤 △프로젝트금융2팀장 백낙권 △재경부장 이승택 ◇부장 △서초센터 김도연 △분당센터 김상훈 △IBK WM센터 일산 센터장 김재경 △IBK WM센터 중계동 센터장 오혜란 △IBK WM센터 평촌 센터장 고병하 △IBK WM센터 광주 박치연 △구조화금융3팀장 강영호 △IT개발팀장 박현철

◆**KTB투자증권** 〈선임〉 ◇부문대표 △IB부문 부사장 이창근 ◇본부장 △IT본부 상무 전상원 〈신규 선임〉 ◇센터장 △채권금융센터 상무 신용도 △금융솔루션센터 상무보 윤신영 △고객만족센터 차장 유선희 ◇실장 △IB기획실 상무 이경수 ◇팀장 △정보시스템팀 이사 김용근 △Biz솔루션팀 이사 홍연경 △PI2팀 이사 김성욱 △종합투자4팀 이사 한승엽 △대체투자분석팀 연구위원 라진성 △부동산 PF팀 부장 강정호 〈승진〉 ◇부장 △리스크심사팀 황영수 △리스크심사팀 이승섭 △준법감시팀 김현숙 △개발금융1팀 정주하 △개발금융2팀 박상재 △종합투자2팀 최승환

◆**한양증권** 〈승진〉 ◇본부장 △이광호 특수IB본부장 ◇상무 △이명옥 채권금융부 △유충식 송파RM센터 △김형수 주식파생운용부 △장정원 채권금융부 △김홍중 채권운용부 ◇이사 △고은현 채권부 △장승진 채권부 △최경연 복합금융부 ◇부장 △우종우 안산지점 △최광주 안산지점 △성정현 투자금융부 △오세원 부동산금융부 △정해동 특수금융부 △이시진 복합금융부 〈전보〉 ◇센터장 △박형배 부동산PF센터장 ◇부서장 △이시승 부동산PF1부 △권순석 부동산PF2부 △박대영 부동산PF3부 △최서윤 대체투자부 △김연우 MS운용부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전무 △AI부문 옥창석 △경영지원팀 김지숙 ◇상무 △주식운용2본부 정무일 △AI본부 문지철 ◇이사 △매매팀 김숙경 △기관마케팅팀 윤병선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준법지원부문 조강영 △정보보호부문 김문호 △MG인재개발원 강왈구 △IT부문 임기철(직무대행) △사회공헌금융부문장 이용우 △자금운용부문장 박천석 ◇본부장 △비서실 강상수 △감사본부 조근준 △전략기획본부 전성기 △총무본부 박재경 △대외협력홍보본부 김동욱 △리스크관리본부 김호술 △관재계약본부 반영식 △IT기획본부 강창기 △IT개발본부 백경섭 △금고경영기획본부 박도형 △금고여신금융본부 심재관 △디지털금융본부 강신철 △예금자보호실 박준철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장경수 △금융기획본부 이미향 △프로젝트금융본부 박정배△대체투자본부 위덕현△지역금융지원본부 이정희 △공제기획본부 김훈기 △공제지원본부 이종성 △검사기획본부 홍상진 △검사감독1본부 김동화 △검사감독2본부 서상민 △검사감독3본부 황길현 △서울지역본부 김지윤 △부산지역본부 박광제 △대구지역본부 심동보 △인천지역본부 유경진 △광주전남지역본부 정찬호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인순 △울산경남지역본부 김정신 △경기지역본부 장경준 △강원지역본부 신윤식 △충북지역본부 강명성 △전북지역본부 박혜식 △경북지역본부 김원규 △제주지역본부 김한신

◆**효성** ·㈜**효성** ◇전무 △효성기술원 김철 ◇상무 △재무본부 이형욱 △피츠버그법인장 연규찬 ◇상무보 △안양공장장 주정권 △전략본부 손판규 △러시아법인장 정상윤 △Hyosung USA 안태환 ·**효성티앤씨**㈜ ◇전무 △인도스판덱스법인장 배인한 △두바이지사장 김태형 △도쿄법인장 김종민 ◇상무 △중국 스판덱스 화남영업 총경리 이성근 △중국 스판덱스 화동영업 총경리 신경중 △타이완법인장 김기현 ◇상무보 △스판덱스PU 유소라 △브라질스판덱스법인 공장장 유상훈 △중국 구매담당 이성수 △경영전략실 김건오 ·**효성첨단소재**㈜ ◇상무 △울산공장 최학철 △경영전략실 박형민 △가흥화섬법인 Film부문 총경리 이시순 △청도법인 생산 총경리 박병권 ·**효성화학**㈜ ◇상무 △비나케미칼즈법인 김종기 △비나케미칼즈법인 박계만 ·**효성중공업**㈜ ◇전무 △건설PU 박남용 △IT 혁신 담당 탁정미 ◇상무 △전력PU 전병규 △전력PU 허우행 △전력PU 김진호 ◇상무보 △전력PU 조현철 △전력PU 김병훈 △전력PU 남경현 △중국 남통법인장 장재성 △건설PU 정진명 △건설PU 전석 △회계팀장 이승욱 △인사팀장 정성훈 △건설감사팀장 남훈 ·**효성티앤에스**㈜ ◇전무 △구미공장장 전석진 ◇상무보 △기술연구소장 이훈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상무 △금융본부장 이정걸

◆**포스코ICT** ◇승진 및 신규 선임 △스마트융합사업실장 이창복 △기술개발센터장 석재호 △경영지원실장 정상경 △스마트EIC사업실장 심민석 △스마트IT사업실장 조석주 △스마트EIC사업실 광양사업담당 권경환

◆**풀무원** 〈승진〉 ◇풀무원 △송기정 정보기술실장 △김태석 기술경영실장 △김동현 학습혁신담당 △전승배 전략지원담당 ◇풀무원식품 △오승훈 SCM기획실장 △임상범 유통경로담당 △이관희 FC경로담당 △유영관계란사업부장 ◇풀무원식품 중국법인 △연덕준 생산/SCM본부장 ◇올가홀푸드 △강병규 대표 △양종하 경영지원담당 ◇풀무원녹즙 △장종의 영업본부장 ◇엑소후레쉬물류 △원대연 물류운영담당

◆**대보그룹** ◇대보건설 선임 △장세준 부사장(주택사업본부장) △김대영 상무(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 ◇대보정보통신 선임 △김상욱 상무(인더스트리사업부 부문장)

◆**종근당** ◇종근당 승진 △상무 이승환 △이사 김성엽 이훈노 ◇종근당바이오 승진 △전무 정진효 △이사 김종학 ◇경보제약 승진 △상무 한정석 △이사 김병옥 ◇종근당건강 승진 △이사 박제현

◆**일동제약** ◇상무이사 △병원영업1본부장 박문수 △〃2본부장 이재훈 △의원영업1본부장 이태학 △〃2본부장 김성주 △〃3본부장 배용찬 △ETC CM 그룹장 장삼성

◆**메디톡스** △윤리경영본부 총괄 부사장 이두식

◆**요진건설산업** ◇승진 △전무 정찬욱(건설사업본부장) △부장 김태훈 한지백 김진우

부음

▲**권성수** 씨 별세, **박득출** 씨 남편상, **권용순·경순·향순·명순·도균**(동아오츠카 상무) 씨 부친상 =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6일 오전 5시 40분, 02-2227-7584

▲**전정화** 씨 별세, **이종일·종길·정숙·태순** 씨 모친상, **방명숙·손경순** 씨 시모상, **차명렬** 씨 장모상 = 3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5일 오전 10시, 053-940-8192

추창근 칼럼

주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실상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가 넘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말했었다. 가장 나쁜 건 이 정부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고, 분명한 잘못의 반성도 없다는 점이다. 무능을 감추고 여전히 자신들만 옳다는 착각과 아집으로 "나는 그대로 간다. 따르라"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의 취임사를 통해 많은 약속을 했다.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協治), 국민과의 소통,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천명했다. 취임 후 처음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그 약속 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의 당연한 질서에 대한 기대는 허망했다. 내내 적폐청산에 매달린 그들의 정의는 한낱 아시타비(我是他非)의 '내로남불'이었다.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은 허울이었을 뿐, 정치의 법치(法治) 농단과 정권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만 남았다. 작년 4·15 총선에서 거대 국회의석을 장악한 여당은 염치와 상식마저 팽개친 독선으로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몰아가 국민분열만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의 고통만 커졌다. 정권의 경제정책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분배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끊고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실패는 참담하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등 모든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 '고용절벽'이다. 작년 초 몰아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치명타다. 그러나 우리 경제와 고용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내리막이었다. 규제에 규제가 덧씌워져 기업활력이 쇠락하면서 성장경로를 벗어난 결과이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로 가라앉다가 작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기는커녕, 정부·여당은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한 채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숨통을 죄는 입법만 밀어붙이는 역주행이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생산·소비·투자가 뒷걸음하면서 경기와 고용이 계속 쪼그라드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있어 역대 최악의 정부다. 세금 공격, 재건축 억제, 대출 차단에 거래까지 전방위로 틀어막는 반(反)시장 규제로 일관한 2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은 집값에 불을 지른 총체적 실정(失政)이었다. 피땀 흘려 집 한 채 일군 사람들까지 징벌적 세금폭탄에 고통스럽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장만의 꿈이 사라진 데 절망한다. 어떤 정책에도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 많다. 민생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한 편가르기 정책만 쏟아내 양극화와 불균형을 키웠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실상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가 넘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말했었다. 가장 나쁜 건 이 정부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고, 분명한 잘못의 반성도 없다는 점이다. 경제와 국민 살림살이가 추락하는데도 실패를 부정하고 코로나 탓, 과거 정권 탓, 언론 탓의 무책임이다. 무능을 감추고 여전히 자신들만 옳다는 착각과 아집으로 "나는 그대로 간다. 따르라"는 식이다.

청와대 참모, 정부 부처 장관들 몇몇 바꿨지만, 국정 쇄신과 어긋난 불통(不通)의 돌려막기 인사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정책 전환의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남은 시간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기는 틀린 것 같고, 정권 성공에 대한 여망(輿望)도 멀어지고 있다. 미래가 자꾸 암담해진다. kunny56@

정책발언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항만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항에는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리지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하나 있다. 바로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이다. 아쿠아리움, 시드니 야생동물월드, 국립해양박물관, IMAX 영화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한때 이곳은 조선소와 곡물, 석탄 등의 산적화물을 하역하던 오래된 창고, 그리고 방치된 철도시설이 위치한 곳이었다. 과거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도시성장을 이끌던 이곳은 세계 해상화물의 중심이 산적화물에서 컨테이너로 이동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낙후됐었다. 지저분하고 퇴락해 천덕꾸러기가 된 도심 속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항만재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그 결과 지금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68년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인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많은 항만 도시들이 항만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도 부산항, 인천항 등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항만의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07년 항만재개발법 시행 후 첫 번째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된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인천 내항도 일부 개방되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재개발사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대형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항만을 돌려준다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기도 하고, 중·소형 사업들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다. 국가 주도의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항만재개발을 위한 숙제라 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4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을 담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항만과 도시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10년간 약 6조 8000억 원을 투입, 총 19개 유휴 항만을 새로 단장해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신개념의 항만재개발을 정착시키려고 한다.

먼저,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항만재개발 전 단계에서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한다.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진행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공청회, 공개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장소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을 담은 경관 확보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건이 마련된 항만재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은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도 추가한다. 부산 북항, 인천 내항, 광양항 묘도 투기장 외에도 군산항 금란도 매립지,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다. 군산항 금란도 매립지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며,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에는 전시·관람시설, 숙박시설들이 도입돼 해양관광거점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느끼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수출이 국가 경제의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열린 바다는 대부분 항만이 먼저 자리해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이번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더는 사용되지 않는 항만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 더 많은 사람이 탁 트인 바다를 누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자수첩

권태성 산업부/tskwon@

V노믹스 시대, 경제 연착륙 대비해야

'위기극복, 기회, 미래 준비.' 해마다 정·재계 신년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해마다 고비였고, 단 한 번도 쉬운 해는 없었다. 만성피로처럼 '위기의식'은 늘 강조돼 왔다. 때론 지나친 위기 강조 탓에 오히려 그 의미가 무뎌지기도 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위기였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항공업계를 비롯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길고 긴 '코로나 블루'를 겪어야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등장하면서 'V자 반등' 기대가 크다. 그러나 코로나 완전 종식 선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에 앞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이르면 2월 시작돼 11월께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우리와 교류하는 해외 국가의 백신 접종까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제서야 백신과 치료제를 들고 바이러스와 제대로 싸울 준비를 마쳤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더 치열하고 긴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와 일상이 극적으로 되살아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금 필요한 건 연착륙 준비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급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경기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안전하게 착륙해야 다시 정비를 거쳐 이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당국과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는 현실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V자 반등의 제일 아래 위치한 꼭짓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치료제와 백신의 등장으로 장밋빛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기엔 여전히 이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브라이언 트레이시 명언

"탁월한 인물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이 과거에 이룬 성취와 미래의 가능성 여부만을 비교한다."

캐나다 컨설턴트.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호텔 주방에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 목재소, 주유소, 주차장, 화물선 등에서 루저 인생을 산 무일푼 노동자. 그는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로 강연하며 연간 매출 3000만 달러의 인력계발 회사를 만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44~.

☆ 고사성어 / 송양지인(宋襄之仁)

어리석은 대의명분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인정이나 동정을 베풀다가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을 비유한다. 송(宋)나라 양공(襄公)이 초(楚)나라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널 때 공격하자는 공자목이(公子目夷) 장군에게 "그건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다"라며 듣지 않았다. 도강한 적군이 진용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하자고도 건의했으나 "군자는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괴롭히지 않는 법이다"라며 듣지 않아 결국 대패했다. 사람들이 송양공을 비웃은 말에서 유래했다. 출전 십팔사략(十八史略).

☆시사상식/소셜다이닝(social dining)

온라인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식사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소셜 다이닝을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중계 역할을 하는 '집밥' 같은 비즈니스도 성업 중이다.

☆ 속담 / 고운 일 하면 고운 밥 먹는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

☆ 유머 / 스님의 반격

신부가 "돼지고기가 참 맛있네요! 한 점 드시지요?"라고 하자 같이 식사하던 스님이 한 말. "감사합니다만 요즘 고기가 영 당기지 않네요! 나중에 신부님 결혼식 때 초대해 주세요. 피로연에서 먹겠습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사진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데스크칼럼

정일환
정치경제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현충탑 참배 후에는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적었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문 대통령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 앞에서 다짐했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 한동안 혼자만 달나라에 사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던 점에 비춰 보면 적어도 평범한 소시민들과 다시 공감대를 갖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어서다.

'반드시'라는 결렬한 각오나 '자신 있다'는 선제적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나 자신감, 혹은 상황 판단이 담긴 발언들은 사고를 불러온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굳이 되새김하고 싶지 않지만 되풀이하지 않아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힐 법한 K방역을 되돌아보자.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해 문 대통령은 귀를 의심할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퍼지기 시작한 2월 중순 남대문 시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상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국민께서 빨리 활발하게 다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일주일 뒤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모아 놓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코로나 감염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대구에서는 이른바 '신천지 사태'가 터져 나왔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사들이기 시작해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온 지 열흘이 못 돼 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며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마스크 5부제를 전격 실시했다.

엄밀히 따지면 K방역은 국민 스스로 시작했고, 문 대통령과 정부는 개인의 방역을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했던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절차'를 반복해서 강조하다 법원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모순에 빠졌다.

국민의 스트레스가 된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자신감과 각오, 상황 판단이 결합해 일을 그르친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장담했다. 지난해 이맘때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기가 그리 길지 않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장담대로 서울 아파트값을 '취임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민생과 경제문제, 심지어 코로나 백신 확보 난맥상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정책실장이 낸 사표를 반려하는 고집은 유독 길었던 2020년을 마지막 날까지 한숨으로 마무리하게 만들었다.

다만, 희망을 품기 좋은 시기이니 지나간 허물은 이쯤에서 덮고 기대를 말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오랜만에 리더다운 면모를 보였다. 마스크에 이어 다시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온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비서실장도 바꿨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의 취임 일성은 "바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들려주겠다"였다. 유 실장은 "무엇보다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 어려움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에게 부지런히 전달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장 너머의 목소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에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한 장면이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버거운데 마치 국가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듯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던 일상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주술 같은 각오나 고문 같은 희망 대신 "일상을 되찾겠다"는 문 대통령의 간결한 새해 첫 다짐이 오히려 반가운 것은 사라진 대통령이 복귀한 듯해서다.

새해를 맞아 대통령께도 덕담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의 희망, 꼭 이루셔서 국민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whan@

사설

올해 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 실효적 대책 있나

올해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시장 조사업체들 한결같다. 정부는 설 이전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장 반응은 이미 냉소적이다. 공급부족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 플랫폼인 직방이 일반인 3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9%가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저금리에 따른 부동자금 유입 등도 시장 과열을 부를 요인으로 지적됐다.

KB금융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서도 작년 12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24.5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시장 체감도가 높은 중개업소들의 향후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인데 100 이상이면 상승 예측이다. 지난달 전국 KB주택매수우위지수는 103.4를 기록해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100을 넘었다. 전국 단위로 매도보다 매수세가 크다는 의미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8.35%)을 보였고, 올해 오름폭은 작년보다 덜 하겠지만 서울·수도권은 5% 안팎, 비수도권은 1~3% 뛸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또한 올해 매매가격이 전국 1.5%, 수도권 1.4%, 서울 1.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변수와 수급상황을 고려한 것인데, 누적된 공급부족의 개선 가능성이 낮고,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6만5500가구로 작년보다 26.5%, 서울은 2만6900가구로 45%나 줄어든다.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계약갱신청구로 계속 눌러사는 세입자가 늘어 물량 품귀가 여전하고, 매맷값이 상승하면 전셋값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에 전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향이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반(反)시장 정책을 고집하는 까닭이다.

주택 수급 불균형, 저금리, 넘쳐나는 시중유동성 등 어떤 지표를 보아도 집값이 오를 요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시장 현실과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없이 쏟아낸 규제가 집값만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낳은 이유다. 시장이 외면하고 실효성도 없는 공공주도 공급 정책의 실험은 또다시 실패할 우려가 크다.

노트북을 열며

배준호
국제경제부 차장

시진핑, 마윈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중국 최대 부호 마윈 알리바바그룹홀딩 설립자에게 지난해만큼 '호사다마(好事多魔·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해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마윈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면 올해는 아예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중국 'IT 굴기'를 주도했던 마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알리바바 자회사인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었고 블룸버그통신 등 세계 언론매체들은 마윈이 앤트그룹 IPO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계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마윈은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10월 말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당국의 금융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있는 자리에서 간 크게 정부를 비판한 마윈은 이후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이 직접 마윈을 불러 호되게 질책했으며 앤트 IPO는 갑자기 무산됐다. 알리바바와 앤트는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아예 앤트를 쪼개버리려 한다.

마윈이 중국 최고의 부자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T 업계 거물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낱 '빈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마윈과 알리바바, 앤트가 빈대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와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면 이후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이 나오겠는가.

마윈에 대한 당국의 견제와 제재는 단순히 그의 기업 제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마윈의 신변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마윈에게 중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마치 마윈을 언제라도 구속할 수 있게 해외 출국을 아예 막아놓는 것처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관리들과 기업 임원들은 "이는 단순히 마윈의 개인적인 몰락이 아니다"며 "테크 거물들의 과도한 힘에 시 주석이 인내심을 잃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중국 지도부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 투자업체 프리마베라캐피털그룹의 프레드 후 설립자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거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둘 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물론 마윈과 텐센트홀딩스의 마화텅 등 중국 IT 거인들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경쟁사를 인수하고 때로는 괴롭히면서 혁신을 저해했다. 당연히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미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제소하기 전까지 1년이 넘게 조사했다. 알리바바와 앤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압박에 나서기 전에 이와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21세기 중국에서 황제의 비위를 건드렸다가 귀양 가는 신하가 떠오르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더는 없어야 한다. baejh94@

특허, 톡!

특허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해였지만 특허출원은 2019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20만2704건으로 전년 11월까지의 19만8063건보다 약 2.3% 증가하였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를 포함하면 49만5164건으로 약 7.9%가 증가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건수의 증가는 다소 놀라운 결과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IP) 출원 건수의 증가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IP 관련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P 금융 정책이다.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하여 기업의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IP 담보대출이 점점 더 활성화하고 있다. 2019년 말 4331억 원을 기록하던 IP 담보대출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11월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0년 IP 출원 건수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IP 확보를 통한 정부지원사업 및 IP 담보대출의 활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실한 특허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진행된 정부지원 및 담보대출은 예산 낭비 내지 대출회수율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특허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근 글로벌 소송에서도 승리하는 등 질적 성장의 효과를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의 경우 여전히 실적 위주의 출원이 많아 특허 품질은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한국 특허권의 낮은 가치이다. 다행히 최근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및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시행되어 향후 특허권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은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태영 특허법인 서한 파트너편리사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2디젤 2WD 18인치:복합13.6km/ℓ(도심:12.1km/ℓ, 고속도로:15.8km/ℓ) I CO_2배출량:140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860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2WD 18인치(빌트인캠):복합13.5km/ℓ(도심:12.1km/ℓ, 고속도로:15.6km/ℓ) I CO_2배출량:141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860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2WD 19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13.2km/ℓ(도심:12.0km/ℓ, 고속도로:14.9km/ℓ) I CO_2배출량:145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885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2WD 19인치:복합13.2km/ℓ(도심:12.0km/ℓ, 고속도로:14.9km/ℓ) I CO_2배출량:145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870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2WD 21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12.6km/ℓ(도심:11.2km/ℓ, 고속도로:14.7km/ℓ) I CO_2배출량:152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05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2WD 21인치:복합12.6km/ℓ(도심:11.2km/ℓ, 고속도로:14.7km/ℓ) I CO_2배출량:152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890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AWD 18인치:복합12.9km/ℓ(도심:11.5km/ℓ, 고속도로:15.0km/ℓ) I CO_2배출량:149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25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AWD 18인치(빌트인캠):복합12.8km/ℓ(도심:11.5km/ℓ, 고속도로:14.8km/ℓ) I CO_2배출량:150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25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AWD 19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12.4km/ℓ(도심:11.2km/ℓ, 고속도로:14.3km/ℓ) I CO_2배출량:155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50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AWD 19인치:복합12.4km/ℓ(도심:11.2km/ℓ, 고속도로:14.3km/ℓ) I CO_2배출량:155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35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AWD 21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12.0km/ℓ(도심:10.8km/ℓ, 고속도로:13.7km/ℓ) I CO_2배출량:161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70kg I 자동8단(3등급) ▶ 2.2디젤 AWD 21인치:복합12.0km/ℓ(도심:10.8km/ℓ, 고속도로:13.7km/ℓ) I CO_2배출량:161g/km I 배기량:2,151cc I 공차중량:1,955kg I 자동8단(3등급) ▶ 2.5T-GDI 2WD 18인치:복합10.7km/ℓ(도심:9.6km/ℓ, 고속도로:12.4km/ℓ) I CO_2배출량:158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20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2WD 18인치(빌트인캠):복합10.6km/ℓ(도심:9.4km/ℓ, 고속도로:12.4km/ℓ) I CO_2배출량:160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20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2WD 19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10.0km/ℓ(도심:8.9km/ℓ, 고속도로:11.6km/ℓ) I CO_2배출량:170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45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2WD 19인치:복합10.0km/ℓ(도심:8.9km/ℓ, 고속도로:11.6km/ℓ) I CO_2배출량:170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30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2WD 21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9.8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1.3km/ℓ) I CO_2배출량:173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65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2WD 21인치:복합9.8km/ℓ(도심:8.8km/ℓ, 고속도로:11.3km/ℓ) I CO_2배출량:173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50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8인치:복합9.8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1.5km/ℓ) I CO_2배출량:174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85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8인치(빌트인캠):복합9.7km/ℓ(도심:8.6km/ℓ, 고속도로:11.4km/ℓ) I CO_2배출량:176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85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9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9.7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5km/ℓ) I CO_2배출량:176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910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19인치:복합9.7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5km/ℓ) I CO_2배출량:176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895kg I 자동8단(4등급) ▶ 2.5T-GDI AWD 21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9.2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0.7km/ℓ) I CO_2배출량:186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930kg I 자동8단(5등급) ▶ 2.5T-GDI AWD 21인치:복합9.2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0.7km/ℓ) I CO_2배출량:186g/km I 배기량:2,497cc I 공차중량:1,915kg I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19인치(빌트인캠):복합8.5km/ℓ(도심:7.4km/ℓ, 고속도로:10.2km/ℓ) I CO_2배출량:202g/km I 배기량:3,470cc I 공차중량:1,975kg I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19인치:복합8.6km/ℓ(도심:7.5km/ℓ, 고속도로:10.3km/ℓ) I CO_2배출량:200g/km I 배기량:3,470cc I 공차중량:1,975kg I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스포츠패키지):복합8.3km/ℓ(도심:7.3km/ℓ, 고속도로:9.9km/ℓ) I CO_2배출량:207g/km I 배기량:3,470cc I 공차중량:2,010kg I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복합8.3km/ℓ(도심:7.3km/ℓ, 고속도로:9.9km/ℓ) I CO_2배출량:207g/km I 배기량:3,470cc I 공차중량:1,995kg I 자동8단(5등급) ▶ 3.5T-GDI AWD 21인치[썸머](스포츠패키지):복합8.2km/ℓ(도심:7.2km/ℓ, 고속도로:9.7km/ℓ) I CO_2배출량:210g/km I 배기량:3,470cc I 공차중량:2,010kg I 자동8단(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제네시스는지점/대리점의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